



2010.10 Vol. 219 October





227색

지역문화의 향연

2010 전국문화원의 날

일시 _ 2010. 10. 8 (금)

장소 _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주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주관 |

지방문화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tents

2010. 10 Vol. 219 October

02	특별기고	다시 생각하는 훈민정음
04	내 마음의 시	10월의 강
05	문화재 산책	국방과 통신 유적, 봉수(烽燧)를 찾아서
08	통하는 이야기	대전의 국장들
14	문화를 잡아라	연희와 가무
18	세계속의 우리 문화	경주 양동마을의 얼
24		살 맛 나는 세상, 인동 하회마을
30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인간 내면의 율림세계 - 옥중편지를 읽다(11)
36	인식의 전환_한글과 편지	왕실의 편지를 엿보다
40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는 여인의 사부곡(思夫曲)
44		인선왕후(仁宣王后) 한글 편지
46		추사선생의 한글 편지
50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6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9		우리 문화 소식
60		원장 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df.or.kr | 전화 02)704-2311 ~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박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영(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전국대 교수), 한춘석(성남문화원장) | 편집발행 문선화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932-7924 | 인쇄 태양 세인피 02)268-2111 | 표지 사진출처 평택문화원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조경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다시 생각하게 한글창제

문화강국의 문자창제 기초를 세운

해마다 시월이 오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일 년 가운데 이 달에 유난히 많다.

국경일 수준의 기념일로 기억될 날들이 다름 아닌 '개천절'과 '국군의 날', '문화의 날'과 '한글날'이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의미를 두어야 할 (10월 9일, 한글날)이야말로 그 중요성을 수십 번 설명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이다. 조선4대 임금이었던 세종(1397-1450)은 왕위에 오른 즉시, 시대적 통찰력으로 집현전 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여러 학자들과 함께 우리 글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고유문자로서 세계문자 사상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오늘날의 <훈민정음>은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담긴 말이 된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는 어지(御旨)가 담긴 <훈민정음 예의본>과 글자 뜻과 사용법을 풀이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 안동 두루마을의 진성이씨 두루종택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학자들끼리 한글창제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설도 많았다고 전한다.

<해례본(解例本)>은 새로 만든 한글 문자를 한문으로 해





세상의 막막함이 간절하여, 간절하여
적요寂寥를 열어 주랴, 만 년 잠 깨워 주랴
신 새벽 어둠 닳도록 뒤척였을 님의 침상.

맨 처음 비추어 볼, 구리거울 닦아 내며
마음에도 길을 내랴, 심청아버지 눈 뜨듯이
자존自尊은 그리로부터 수직으로 섰나니.

*줄작 | '대왕, 세종世宗님은' 1-2연

설한 책이며, 한글 반포 3년 후가 되는 세종28년(1446)에 발간되었다. 정인지 등이 왕명에 따라 전권 33장1책으로 완성시켰고, 내용1부는 세종의 문자창제 목적과 서문, 28자 새 문자 소리내기와 쓰임새 등을 예시. 설명한 본문이다.

내용2부는 해례본으로 집현전의 젊은 학자 10여 명들이 문자 제작원리와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결합 등의 사례를 담고 맨 끝에는 정인지의 서문이 첨가되어있다. 발간일은 9월 상순으로 오늘날 '한글날'이 10월 9일로 제정되는 바탕이 되었다.

한국인이거나 더구나, 선민의식의 문화시민을 자처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글'의 과학적인 독창성, 합리적인 체계성의 뛰어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문자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기본문자 40자 로(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많은 발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데 반론을 가질 이는 없을 것이다. 인류가 지닌 지적유산이라는 '세계 기록문화 유산' 총7건 중에서도 그 첫 번째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하지 않았던가.

1962년도 국보(國寶) 제70호 지정에 뒤이어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라 현재, 간송미술관에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되고 있다.

중국에는 실용한자가 무려 1000개나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한글은 음운 24개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비 오는 소리, 눈 오는 소리, 심지어는 꽃 피는 소리, 꽃 지는 소리까지, 이렇게 우리는 거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인구 중 약 10%는 말은 있으나 글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文化란 문자를 통해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

오늘 날 국제와 시대와 컴퓨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고유한 우리의 한글을 더욱 더 소중히 지켜 나가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국문학자, 시조시인

10월의 강

시월의 강가에 와서 세월을 본다
한 계절이 강을 건너가고
먼 데서 또 한 계절이 오는 길목에
갈대들의 은빛 머리결이 부시다
풀섶 뒤 초록 눈을 가진 악사들은
오는 가을을 위해 악기의 현을 고르고
그 소리에 우리들은 또
오래도록 잠 못 이룰 것이다
여위어 가는 강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에도 푸른 강이 열린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과의
따뜻한 화해인 지도 모른다
유년에 무심히 던졌던 조약돌 언저리에
나는 다시 몇 개의 돌을 날리고
파문으로 출렁이는 그리움에 젖어
강 건너 불빛, 그 화해의 땅으로
돌아간다.

강 만 시인,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시와 시학〉으로 등단, 〈용아 박용철문학회〉회장, 시집〈유랑의 새〉외 다수



국방과 통신 유적, 봉수(烽燧)를 찾아서

봉수(烽燧)란 햇불(烽)과 연기(燧)로써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려 군민(軍民)합동으로 이를 대비하게 하였던 경보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의 방법으로 밤에는 햇불(烽, 火)로, 낮에는 연기(烟, 燧)를 피워서 신호를 전달하였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화포나 북, 각성(角聲, 나팔) 또는 깃발로 알리거나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연기를 피우는 데에는 이리 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낭화(狼火) 또는 낭연(狼煙)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경국대전』에 보면 일상적인 평화가 지속되는 날에는 1개의 화를 올리고, 만약에 적이 멀리 나타나면 2화, 경계에 가까이 접근하면 3화를 올리도록 하였고, 경계를 침범하면 4화,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다섯 개의 봉수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봉수를 올리는 시설물을 봉수대(烽燧臺) 혹은 연대(煙臺)라고 하며, 우역(郵驛) 제도와 함께 근대적인 통신 시설이 사용되기 이전의 전통시대에는 가장 빠른 통신방법이었다. 봉수는 인편이나 역마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상 효율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수 제도는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에서 관장하여 정치적, 군사적 통신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으르면 봉수제도는 전국에 큰 노선 다섯 개(5炬)의 직봉(直烽)노선을 배치하고 그 직봉노선을 서로 연결하는 간봉(間烽)노선을 설치하여 마치 거미줄과도 같이 전국을 봉수 통신망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바닷가에는 연대(煙臺)를 설치하고, 내륙에는 내지봉수 또는 복리봉수(腹裏烽燧)를 배설하였고 서울 목역산(남산)에서 전국의 봉수신호를 받아 병조(兵曹)

에 보고 하도록 했다.

봉수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의 형성 시기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토전쟁이 벌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봉수제도는 이미 중국 주(周)나라에서 시작되었고 한(漢), 당(唐) 시대에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곧 한나라와 당나라가 국제적으로 영토 확장을 꾀하는 가운데 이민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봉수제도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중국의 설화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중국 서주(西周) 말기에 유왕(幽王)은 포사(褒姒)라는 미인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도무지 웃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때 마침 봉화가 올라갔고 봉화 신호에 따라 지방의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집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보고 포사가 웃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유왕은 포사의 웃음을 보려고 세 번이나 허위로 봉수를 올려 지방의 제후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렇게 세 번의 장난이 있은 직후, 신후(申侯)가 견융(犬戎)족을 이끌고 주나라를 공격해왔는데 유왕이 지방의 군사를 모으기 위해 봉화를 올렸으나 제후들이 장난으로 알고 모이지 않아 마침내 주나라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의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서양의 고사에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라고 장난쳤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서주(西周)에서는 긴급한 군사정보 수단으로 봉수(烽燧)와 대고(大鼓)가 있었다. 이는 북방의 견융(犬戎)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동쪽에 있는 여산(驪山) 위에 봉화대와 대고를 설치하고 주변의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만약 봉화를 피우면 적이 쳐들어 온 것으로 알고 각 지방에서 군사를 이끌고 집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역시 초기 국가 시기에 봉수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연 스님이 쓴 『삼국유사』 「가락

국기」에는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허황후를 맞이하기 위해 유천간(留天干)으로 하여금 망산도(望山島) 앞 바다에 나아가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을 시켜 승점(乘帖-輦下國)으로 나아가게 하여 붉은 빛의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배를 햇불로써 안내하였다는 기록에서 햇불을 들어 신호를 보냈던 봉수의 유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이르면 백제 온조왕 10년(BC19)에 말갈족이 국경을 침입하므로 군사 200여명을 보내 곧 미천에서 막아 싸웠으나 패하고 청목산(靑木山)에서 방어하고 있다가 다시 정병 100여명을 거느리고 <봉현(烽峴)>을 나와 공격했더니 적들이 퇴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이왕 33년(266)에 신라의 <봉산성(烽山城)>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양군 고적조에 고구려 안장왕 때 봉화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고구려 제14대 봉상왕(烽上王, ?~300)의 왕호에도 <烽>자를 사용하고 있다.

고려시대 또한 봉수제의 맥이 이어왔는데 중국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림과 함께 남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고려의 봉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송의 사신이 흑산도에 들어서면 매양 야간에는 항로 주변의 산 정상 봉수에서





햇불을 밝혀 순차적으로 왕성(王城)까지 인도하였다는 기록인데, 현재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상라산 정상에는 봉수터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우리 나라 봉수가 제도적인 정비로 하게 된 것은 조선 세종 때에 와서이다. 세종 때에는 4군 6진의 개척과 함께 국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가 무엇보다도 긴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태종 6년 함경도 경원 지역에 흩어져 사는 군민들을 모아 성 가까이 모여 농사를 짓게 하고 적이 나오는 요충지에는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봉수를 설치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케 하였다.

그 후 세종의 즉위 후 산성의 수축 등 다양한 국방 대책이 진행되었고, 세종 19년 2월에 각도의 변방에 봉화를 설치하고 여기에 연대(煙臺)를 높이 쌓고 근처에 사는 10여인을 모집하여 봉졸(烽卒)로 배정하여 3인이 근무하게 하고 5일만에 교대를 하게 하였다. 이후로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군(烽軍)의 숫자는 시대에 따

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으나 대체로 5명씩 25명이 근무하고 봉화보(烽火堡) 75명이 봉군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전국에 설치된 봉수의 수는 시대에 따라 설치와 폐지, 통폐합 등의 조치가 있어서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동국여지승람』에는 최대 738개의 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봉수제도는 1894년에 폐지된 이후로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이후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어 통일기원봉화제 등의 행사로 재현된 바 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홍 NH공사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대전의 국장들

대전에는 1995년 3월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4개의 문화원 연합으로 지회를 발족하였고,

다음 해에 동구문화원이 설립되면서 5개 문화원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가 구성되었다.

대전시지회(지회장 : 박세규 서구문화원장)에서는 소속된 5개 문화원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섯 개 문화원이 서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장점이 있기도 하고, 같은 문화권이라는 동질감이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열성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협력과 화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전에는 1995년 3월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4개의 문화원 연합으로 지회를 발족하였고, 다음 해에 동구문화원이 설립되면서 5개 문화원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시지회가 구성되었다.

대전시지회(지회장: 박세규 서구문화원장)에서는 소속된 5개 문화원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섯 개 문화원이 서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은 장점이 있기도 하고, 같은 문화권이라는 동질감이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열성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협력과 화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월 9일 오전 11시, 무더위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대전의 사무국장들이 대전시지회가 있는 서구문화원에 모여 문화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지회 지하영 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창희(중구문화원), 박범창(유성문화원), 송재민(서구문화원), 이원구(동구문화원), 임창웅(대덕문화원) 등 대전의 사무국장 모두가 참석했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석한 사람은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윤종준 연구위원이다. 딱딱한 회의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었기에 개별적으로 각 1인별로 대화를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안별로 사무국장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서구문화원은 편리한 구조로 잘 지어졌네요. 각 문화원의 원사는 어떤가요?

대전의 문화원들은 타 지역에 비해 독립된 원사 확보가 잘 이루어져 있다. 대덕문화원의 경우 대덕문화예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문화원의 경우 주차 빌딩과 문화공간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사례로 알려져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문화원 송재민 국장, “지난번에 내가 대통령 직속

산업평가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원이 선정이 됐어요. 문화공간을 주차장과 활용을 해서 잘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는 거니까 이걸 홍보를 한다고 해서.....문화원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마다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고, 대구나 서울에서도 견학을 오겠다고 하고.....” 서구문화원 송재민 국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국장들도 이구동성으로 대전의 문화원 시설현황을 이야기하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다. 중구문화원이 원사를 지었고, 동구문화원에 이어 2008년에는 대덕문화원이 문화회관 운영을 맡게 되고, 서구문화원이 금년에 새로운 건물을 확보하면서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한다. 이런 발전의 배경에 “시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했더니 “지원 해주려는 마음이 중요한데 저희 문화원 자체 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한다.

문화원들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문화원 역할찾기라는 주제로 국장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고, 행사를 할 때도 같이 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시지회의 다섯 개 문화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축제가 정월대보름 축제이다. 정월 대보름이면 동구문화원 앞 광장, 서대전 시민공원, 둔산동 샘머리 공원, 유성구청 앞 어은교 둔치, 동춘당 공원 일원 등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2009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에는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행사를 주관하였다. 우주올림픽으로 불리는 대전 국제우주대회(IAC)는 전 세계 72개국 4056명이 참석하여 1614편의 논문이 발표돼 IAC 대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리고 IAC대회와 동시에 열린 ‘WTA 대전 High-tech Fair’에는 대전지역 4개 기업이 8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기관과 지역 건설기업의 MOU 체결 3건, 5개 기업의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의 성적을 올렸다. 이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훈민정음 홍보대사와 LCD전광판 및 영문 판넬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글의 과학성



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통민속놀이 체험, 전통차와 음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대전의 과학과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이런 공동 협력 사업의 경우 각 문화원 간 협력과 정보교류, 그리고 공존한다는 의식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대전의 문화원들이 지닌 장점을 이렇게 말한다. “대전 지역의 문화원 규모가 적절한 것 같아요. 5개니까. 그리고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문화원에서 하는 게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간 확보가 잘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하고 앞으로 의견 주고 소통하는데 힘쓴다면 문화원이 더욱 발전하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는 어려움은 없나요?

대체로 문화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는 답변이 돌아온다. “일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 풀리는 문제죠. 앉아서 인력타령, 예산타령만 하면 아무것도 안되고..... 우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 하다보면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일단은 일이 많아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거든요. 외부에서도 봤을 때 그 조직이 사람이 너무 적어 일이 벅차다 하면 인원 충당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른 방법, 공익근무요원의 지원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인턴을 지원하기도 하고... 문화원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이 많으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문화원의 위상은 어떤가요?

“대전의 경우 문화원이 대체로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원의 위상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론과의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원이라는 곳이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탈바꿈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산을 갖고 있는 단체

들이 지원을 하게 되지요.”

문화원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서구문화원 송재민 국장의 말을 들어 보자.

“제가 최근 신문 기사를 봤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대요. 문화원에 만족을 하느냐는 설문엔 만족 51%, 불만족 20%, 도서관은 만족 40%, 불만족은 10% 정도... 만족은 우리가 받은 넘었는데, 예전에는 문화원이 뭐하는 곳인지 자체 인지도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50%를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향후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문화원이 시민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겠어요. 충남대 조사가 표본이 600명 밖에 안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문화원이라는 이름이 거론 된 것은 예전과 다른 대단한 변화라고 봅니다.”

문화원에 대한 위상의 변화에는 현대적으로 조성된 편리한 시설도 한 몫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시장, 세미나실을 대관을 해요. 얼마 전에 대전시 어린이집 연합회 총회를 우리 문화원에서 했어요.

‘여러분이 대전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1~6층까지 안내를 했는데 대관 한번에 30만원인데 그 계약이 7~8건 이뤄졌어요. 대전에 있는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여기서 받고도 있고요. 12월까지의 예약이 다 찼습니다. ‘대전서구문화원에서 모임’ 같은 것이 언론에 비취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문화원이 알려지기 시작한데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사무국장이나 원장이 지역주민에게 문화원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공간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공간이 만들어졌고, 문화원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원으로 같이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대전문화원의 현재의 상황이다.

또 다른 말을 들어보자.

“문화원의 이용이 주로 중장년층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소년시대, 카라, 비스트 이런 연예인 사인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층들이 와서 문화원의 위치를 알고 갔고,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젊은 친구들에게 문화원을 알리는 거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전시지회 지하영 사무처장은 말한다.

“문화원은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고, 대전이 교통중심지인데 (우리 사무국장들이 꿈꾸는 것은) 대전이 문화 활용 공간을 교통여건에 맞춰서 대전에서 여러 행사도 유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난 사무국장협회 총무예요.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 축제





에 초청 받아서 갔더니 그 곳 사무국장님이 문화원에는 창피하니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봐도 너무 열악해요. 우리 대전의 5개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일이 있을 때는 똥똥 뭉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광역시장한테 가서 애기도 하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요. 능력이 있진 않건 간에 사람들은 흔히 예산이나 일들을 시도도 안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5명이 뭉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능력 있는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늘 발전방향들을 고민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래서 서구가 대전에 있는 사무국장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무조건 밀고나가니까 이만큼 된거죠.”

문화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문화원들이 흔히 강좌 중심의 사업을 하거나 행사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원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 이제 그 고령화 사회의 문화적 대비가 절실히 지고 있다. 연합회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이런 처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솜씨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대전에서는 어떠한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가서 연극도 하고 공예품도 만들고 이런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노인문화학교를 통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3~4년 동안 계속 하니까 그제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사회적비용. 그래서 50명 정도 뽑아서 도자기 만드는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비용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문화원

자유롭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고, 대전의 국장들이 품고 있는 문화사랑, 지역사랑의 열정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그들의 열정으로

대전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으니, “구청공무원들이 문화원에 배우러 오겠대요. 일을 얼마큼 하나에 따라 인력도 늘어나는 거고.....” 예전의 문화원들이 가진 고민 중에는 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떤 형태로 말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축제 같은 행사 규모나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문화원에 형식적으로 일을 주고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럴 때 직원 수가 적은 문화원으로서의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구에서는 문화원에 일 주려고 안달들 나는데.. 그럼 직원들이 문화원 자체 일로도 바쁘게 토요일, 일요일도 그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문화원이 구청의 일을 다 받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화의 큰일들도 하고 큰 흐름도 같이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보면 구 행사에 관련해서 문화원이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획서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돼서 하면 됩니다. 구청의 다른 과와 같이 똑같이 내년도 기획서를 써요.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죠. 문화원 자체가 여건상 독립적으로 서기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일을 국가나 시에서 따서 하든 암만 많이 해도 구청에서 볼 때에는 ‘문화원이 우리 구의 한 일원으로서 발전을 위해 같이 가는 거다.’ 라는 걸 사무국장 입장에서 심

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뒷 이야기

일을 하다 보면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휴일에 출근하고 평일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직원들 간의 프라이버시, 개인적 용무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의 상관관계 -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보았다고 행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몫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 고 한 것처럼 일의 배분과 나눔에 있어서도 적절한 역할의 안배가 중요하다.

각 문화원에서 있었던 그런 작은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무실 출입문과 공연장, 강의실, 사물함 등등 건물 내에는 다양한 열쇠 꾸러미가 필요한 곳이 많다. SECOM 방식, 번호 키 방식, 각 방마다 열쇠가 따로 있어야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열쇠 한 두 개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오고 갔다.

사소한 듯 하면서도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를 넘나드는 주제였는데, 서구 문화원 송재민 국장은 즉시 열쇠 체계 개선 방안을 직원들과 상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회와 가무

1. 사계장연회도 중 내외선운도



10여 년 전만 해도 가족이나 친지들의 회갑연 혹은 고회 연 등에 초대받는 일이 가끔 있었다. 호텔이나 회관 혹은 시 외곽의 큰 음식점을 빌려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번졌다. 잔치 때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음악과 춤이었다.

서양악기의 현악사중주단을 초청하는가 하면 가야금이나 대금 등 한국악기 연주자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하다 못해 전자 피아노 한대와 무명 가수 한명이라도 불러야

했다. 그런 경우 참석자들에게 돌아가며 노래를 시키곤 했는데, 지명 받은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즐거워하며 동참했다.

마이크에 대고 목청껏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것으로 잔치의 흥을 돋우기도 하고, 평소에 쌓인 긴장과 피로를 모처럼의 기회를 맞아 해소하는 듯도 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꼭 잔치 때가 아니더라도 전국 곳곳 골목길마다 들어서있는 노래방에서 떠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노래하



2. 처용탈

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어찌 스트레스 때문뿐이라, 우리 민족이 흥이 많고 시시때때로 가무를 즐겨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이나 자료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궁중에서나 민간에서나 우리 조상들은 연회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음악과 춤을 함께 하였던 것이다.

그림 1은 궁중에서의 연회 장면을 간략하게 그린 사계장연회도첩(賜幾杖宴會圖帖) 중 한 장면이다. 사계장제도(賜幾杖制度)는 70세가 넘은 원로대신에게 의자(幾)와 지팡이(杖)를 내리고 정사를 계속 돌보게 했던 국노우대책(國老優待策)의 하나이다. 이 그림은 원로대신을 초대하여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음악과 춤으로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연회장 중앙의 맨 앞 단 아래에 앉아 있는 연회의 주인공에게 도승지가 어사주를 드리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음식을 담은 상을 앞에 놓고 양쪽에 앉아 있다.

왼쪽 맨 위의 빈자리는 아마도 주인공이 앉을 자리인 듯하다. 연회장 중앙에는 5명의 무용수가 처용무(處容舞)를 추고 있으며 오른쪽 하단에는 5명의 가수와 녹색옷의 집박(음악을 주도하는 역할), 붉은 옷을 입은 악대가 앉아서 무용 반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대 옆의 큰 원탁에는 꽃을 담은 병을 놓았으며 그 왼쪽에는 화로에 어떤 음식을 데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회장 밖에는 참석자들을 태우고 온 듯한 세 대의 가마와 가마꾼들, 마차와 마부가 대기하고 있다.

참고로, 그림에서 행해지고 있는 처용무는 조선시대 *궁중정재(宮中呈才) 중 하나로 신라의 처용설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黃(土), 靑(木), 白(金), 赤(火), 黑(水)색의 옷을 입은 무

용수가 처용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이다.

의상의 색깔은 음양오행에 의한 것으로 오방색이라 하며 황색은 중앙을, 나머지 색은 동서남북을 뜻한다. 처용설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신라 헌강왕이 개운포(울산)에 행차하였다가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며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신하를 시켜 알아보니 동해 용왕이 조화를 부렸다는 것이다. 왕이 용을 위해 절을 지으라고 명하자 조화를 멈춘 용은 일곱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와 인사했다.

왕은 용왕의 아들 중 처용을 데리고 와서 벼슬을 내리고 아름다운 여자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런데 역신(疫神)이 그 부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몰래 와서 동침하였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그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춤을 추었다.

"동경 밝은 달에 / 밤드리 노닐다가 /
들어와 자리 보니 / 다리가 넷이어라 /
둘은 내 것이려만 / 둘은 뉘 것인고 /
본디 내 것이지만 / 빼앗긴 걸 어찌하릿고."

역신이 그만 항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공의 아내를 탐내어 범하였으나 조금도 성내는 기색을 하지 않음을 보니 앞으로는 그대의 얼굴 그림만 보아도 문안에 들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사람들이 악귀를 물리칠 때마다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처용무는 궁중정재로, *나례(儺禮)의 목적으로 추는 춤이다.

그림 3은 양반 댁에서 치러지는 잔치의 모습이다. 그림 왼쪽

그런데 요즈음은 꼭 잔치 때가 아니더라도 전국 곳곳 골목길마다 들어서 있는 노래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노래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어찌 스트레스 때문뿐이라,

우리 민족이 흥이 많고 시시때때로 가무를 즐겨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이나
자료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궁중에서나 민간에서나 우리 조상들은 연회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음악과 춤을
함께 하였던 것이다.

의 집안에서는 주인공이 병풍을 둘러 친 중앙에 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으며 그 양쪽과 앞의 손님들도 각자의 상을 놓
고 앉아있다. 가운데 작은 무대에서는 두 명의 여기(女技)가
칼춤을 추고 있는 듯 하며, 그 앞에는 신분을 알 수 없는 남
자 하나가 곱사등이춤을 추고 있다.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아예 상을 돌려놓고 앉아서 넋을 잃은 채 구경하고 있다. 마
당 아래에는 6명의 악사가 삼현육각과 유사한 악기 편성으
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삼현육각은 피리2, 대금, 해금, 장
구, 북으로 연주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대풍류 음악이나 민
속무용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 편성이다. 심부름하는 하인들의
모습은 조그맣게 그려 놓은 것이 보인다.

오른쪽 대문 밖에는 또 다른 손님이 여러 명의 하인을 대동
하여 8인교 위에 양산을 받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은 채로
지금 막 도착하고 있다. 주인집 집사가 황급히 달려 나가 허
리를 꺾어 인사하여 맞는다. 기다란 막대기를 든 여러 명의
호위대가 문 앞을 지키고 있다.

손님을 초대하는 잔치 자리에서만 가무를 즐겼던 것은 아니
다. 그림 4에서 남자는 담장을 둘러친 넓은 집 후원에서 버
들가지가 늘어져 있는 나무 그늘 밑의 운치 있는 누각에 앉
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자는 살찌고 윤기 나는
말과 깃털을 반듯이 세우고 자태를 뽐내는 귀한 새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반이거나 재력이 있는 상류층인 듯

3. 풍산김씨 축석루연회도
4. 석천한유
5. 사계풍속도병 사당연회





하다. 하녀는 음식을 나르고 기녀는 술병을 들고 있다. 누각 위에 앉아있는 두 명의 여인 역시 기녀인 듯한데,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그 중 현악기는 현재에도 사용되는 정악가야금과 모양이 동일하다.

전통적인 가야금에는 궁중음악이나 선비들의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되던 정악가야금(법금)과 민속기악 혹은 민요나 무용 반주에 주로 사용되던 산조가야금이 있으며, 근래에는 합성 재질의 현을 엮고 크기를 확대한 18현금, 25현금 등의 개량악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비로 보이는 그림의 남자는 지필묵과 서책 혹은 돈궤인 것도 같아 보이는 물건을 앞에 놓고 있으며, 공부 또는 일을 하면서 홀로 풍류를 즐기고 있다.

위의 그림들에서 본 가무의 모습은 주로 양반들이나 상류층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꼭 여유 있는 상류층에서만 가무를 즐겼던 것은 아니다.

그림 5는 평민들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사당패와 구경꾼들의 모습이다. 사당패는 남2, 여2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의 검정 옷에 두건을 갖춰 쓴 이는 우두머리 격인 모갑(某甲)인 듯하다.

남자 들은 복을 두드리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고 땅바닥에 펴놓은 사각의 천에는 엽전 꾸러미와 엽전들이 놓여 있다. 여자 중 한 명은 부채를 들고 춤을 추고 있으며 샅갓을 쓴 여

자는 부채를 내밀어 구경꾼들에게 돈을 건고 있다. 그것을 보며 딸을 데리고 구경 나온듯한 푸른 색 두루마기의 남자가 돈을 꺼내려고 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 오른쪽 가운데에는 단장을 짚은 할머니도 손자를 업고 구경 나왔다. 그림의 왼쪽 아래에는 띠꺼머리총각 하나가 돈 대신에 내려는 지 아니면 구경만 하는 것인지 수탉 한 마리를 옆구리에 끼고 있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자세로 앉거나 선 채 사당 놀이를 구경하고 있다. 갓 쓴 남자들이 입고 있는 푸른 색 혹은 흰 색 두루마기는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듯 남녀노소 구별 없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사당패의 놀이를 구경하며 흥겨워하고 있는 모습은 풍류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람들은 흥겨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생활 속에서 가무를 즐기곤 하였다. 그러한 흥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회식이 끝난 후에 습관처럼 노래방을 찾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 궁중정재(宮中呈才) 국가기관에 속하여 오랫동안 성창·발달해온 궁중춤.

* 나례(儼禮)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 의례 중 하나

경주 양동마을의 얼



필자가 23살이었던 1987년 가을, 양동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10년 지금의 양동마을에는 이곳을 찾는 이들의 버스와 승용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조차도 수없이 찾아드는 유명한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1987년 당시에는 고즈넉하기 그지없는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한 노인에게 들었던 가르침의 대강(大綱)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노인이 묻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직 세상 물정을 터득하지 못한 내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노인은 내게 〈天·地·父·母·吾·祖·妻·子·孫〉이라고 수첩에 적어 주고는, 한 시간 여에 걸쳐 열거한 아홉 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다. 하늘을 경외 하고, 땅이 주는 혜택

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가 소중한 것이라 했다.

조상과 처자와 후손이 모두 소중한 것인데, 굳이 우선해야 하는 순서를 따진다면 천지를 잘 받들어야 하고, 부모는 마치 천지와 같은 것이라 했다.

그 다음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조상과 처자 후손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처자와 후손에게 까지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안강평야

무엇일까? 명문가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만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반드시 명문가의 마을에 흐르는 모범적인 정신세계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동(良洞)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500년이 넘는 고색창연한 54호의 옛 기와집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고즈넉한 110여 호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을에서 우재 손중돈, 회재 이언적(1491~1553)을 비롯하여 명공(名公)과 석학을 많이 배출하였다. 과거급제자는 116명이었고 최근까지 장관 2명, 교수 60명, 관·검사 30여명을 배출했다.

양동마을은 형산강 줄기를 따라 포항쪽으로 40리쯤 내려간 곳

에 설창산(雪蒼山, 161m)의 문장봉을 주산으로 하여 네 줄기로 뻗어 내린 능선과 골짜기가 물(勿)자형의 지세를 이루어 내곡(內谷), 물봉골(勿峰谷), 거림(居林), 하촌(下村)의 4골짜기와 물봉동산과 수줄당 뒷동산의 두 산등성이, 그리고 물봉골을 넘어 갈구덕(渴求德)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다.

한 예로 勿자의 아랫부분에 획 하나를 더하면 血자가 된다하여 일제가 계획한 마을 안으로의 철도통과를 우회시켰고, 남향의 양동초등학교 건물을 동향으로 돌려 앉혔다고 한다.

4개의 언덕들이 가로막으면서 바람을 여과시키기 때문에 온순한 기운이 감돌고, 앞이 낮고 뒤가 높아 일조량도 충분하다.

관가정에서 바라보는 안강평야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를 보면 이곳이 부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마을의 입체적인 규모는 외국인들의 눈에 찬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 묻지 않은 향토성 등에서 어느 곳보다 훌륭하고 볼거리가 많아 1992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이곳을 방문하여 찬사를 남겼다.

이 마을에 이씨와 손씨가 터를 잡게 된 것은 여강(驪江) 이광호가 이 마을에 거주하였으며, 그의 손서(孫壻)가 된 풍덕 류씨(豐德 柳氏) 복하(復河)가 처가에 들어와 살았고, 이어서 양민공(襄敏公) 손소(孫昭, 1433~1484)가 류복하의 무남독녀와 결혼한 후 청송에서 처가인 양동으로 이주하여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곳에서 살게 되면서 양동마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 이광호의 재종증손(再從曾孫)인 이번(李蕃)이 손소의 7남매 중 장녀와 혼인하여 영일(迎日)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았으니, 이들의 맏아들이 동방5현의 한 분인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이다.

양동마을이 외손마을이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실제 남자가 처가를 따라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풍덕 류씨의 후손은 절손되어 외손인 손씨 문중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

회재 이언적의 외조부인 양민공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에 책봉되었는데, 그의 공신교서에는 공신에게 내린 특전이 어떠했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공신에게는 초상화를 그려 그 풍모를 후세에 길이 전하게 하

고, 부모와 처자의 벼슬을 올려주며, 사법상의 특전으로 웬만한 죄도 사면될 수 있었다. 10여명의 비서진과 내구마 1필도 특별히 하사되었고, 노비 10명, 은 25냥, 관복 1벌, 토지 100결이 따로 주어졌다. 100결은 지금의 약 1백만평에 해당된다.

사후에는 시호를 내려 주고, 영원히 제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뒤따랐다. 양민공은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받았지만, 권세를 휘두르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부

월성 손씨 대종가(서백당)



조상과 처자와 후손이 모두 소중한 것인데, 굳이 우선해야 하는 순서를 따진다면 천지를 잘 받들어야 하고, 부모는 마치 천지와 같은 것이라 했다.

그 다음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조상과 처자 후손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처자와 후손에게 까지 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무엇일까? 명문가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만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모 봉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기가 일쑤였고, 벼슬도 외직을 자청하여 선정을 펼치고자 애썼다.

52세에 사망하자 사관은, “손소는 사람됨이 순박하고 근신하며, 관리로서의 재능이 있고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워서 매번 어버이를 위하여 외방에 보임되기를 청하였는데, 성주·진주·안동의 세 고을을 맡았을 때에 모두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어졌다”고 하여 그의 청렴을 특필하였고, 김종직도 그의 비문에서 청백리로서의 면모를 극찬해 마지 않았다. ‘월성 손씨 대종가’인 서백당(書百堂)은 ‘참을 인자를 100번씩 쓴다.’는 의미이다. 종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큰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서백당 앞 마당의 향나무는 600년이 넘었으며 종가댁 할머니가 대제를 지내고 난 뒤 항상 막걸리 한 말을 부어준다고 하는데, 1970년대 초반에 용인 에버랜드를 조성하면서 이 나무를 그 당시 2천만원





에 사겠다고 하는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손씨 집안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서백당은 '3명의 혈식군자(血食君子)가 나오는 자리'라 한다. 혈식군자란 서원에 배향되는 정도의 인물을 가리킨다.
 그 첫 인물이 바로 우재 손증돈이다. 우재는 류씨 어머니가 태양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낳았다고 전한다. 27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관찰사를 거쳐, 43세 때 중종반정 직후 상주 목사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그곳 주민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추모할 정도였다.
 회재 선생은 외삼촌인 우재를 추모한 제문에 '외삼촌의 넓고 크고 강직한 성품은 이미 타고난 것이어서 덕이 완성되고 행적이 높아 별 노력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남의 모범이 되셨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義)를 안다면 모두 외삼촌이 주신 것이다.' 하였다.
 서백당 산실에서 다음으로 태어난 큰 인물이 회재 이언적이다. 회재의 어머니가 해산 무렵이 되자 친정인 서백당에 와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다.

서백당 산실에서 다음으로 태어난 큰 인물이 회재 이언적이다.
 회재의 어머니가 해산 무렵이 되자 친정인 서백당에 와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다. 서백당 혈식군자 3명중 1명 몫을 이씨 집에서 가져갔으므로 이후부터 손씨 집에서는 출가한 딸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서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변의 집들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지막 한 인물은 꼭 손씨 가문의 핏줄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백당 혈식군자 3명중 1명 몫을 이씨 집에서 가져갔으므로 이 후부터 손씨 집에서는 출가한 딸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서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변의 집들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지막 한 인물은 꼭 손씨 가문의 핏줄 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손씨의 종손 손성훈씨는 ‘집중유권(執中有權)’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종손으로서 처신하는 데 ‘중용(中庸)’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 한다. 중용을 벗어나면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중용을 취하는 데서 권위가 생긴다.’는 뜻이다.

“저희 집안이 5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내지 정신을 찾는다면 바로 이 중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時中)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고 처신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저희 집안사람들은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가정(觀稼亭, 보물 442호)

청백리 우재 손증돈(1463-1529)이 분가하여 살던 집이다. 격식을 갖추어 간결하게 지은 우수한 주택건축이며 한 눈에 들어오는 형산강과 경주를 품어 안는 경관이 일품이다. 관가정(觀稼亭)이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이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이다.

살 맛 나는 세상, 안동 하회마을

하회 문화지킴이 류영일 해설사와
함께 하는 하회문화 알기





하회(河回)마을 하면 우선 떠올리는 '하회 별신굿 탈춤'은 각 시 탈, 양반 탈 등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가면의 얼굴을 통해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풀어내면서 살 맛 나는 환관 세상을 펼치는 놀이이다. S자 모양으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끼고 아늑하게 자리 잡은 하회마을이 곧 '살 맛 나는 고을'이다. 서민들의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있다면 양반 중심의 놀이인 '선유줄불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고, 전통 생활문화와 고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보존되고 있다. 2010년 8월 1일 경주 양동민속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기와집 162동, 초가 211동, 기타 85동, 도합 458동의 건물이 있고 주민은 232명이다.

하회마을은 '부용대권', '민속마을권', '병산서원권'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간 백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대부분은 민속마을권만이 하회마을 전부인양 다녀간다. 하회마을에는 전통 한옥, 탈춤의 해학과 풍자 등 문화적인 요소와, 임진왜란과 류성룡과 같은 역사적인 요소, 수려한 자연경치가 복잡하게 얹혀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하회가 아니다. 부용대에서 바라보는 민속마을은 숲을 보는 것과 같고 민속마을 골목 골목은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보는 것과 같다. 여기에 더하여 병산서원의 장중한 자연풍광과 정신적 학문세계를 둘러 본 다음에야 하회마을을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부용대로 건너가는 배 안에서 하회마을 문화지킴이 류영일 해설사를 만나 부용대권을 둘러보았다. 류영일 해설사는 1943년 하회에서 류성룡 선생의 13대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회문화를 직접 체득하면서 자랐고, 가학(家學)으로 깨우친 한문을 해석하며 설명해 주기에, 듣는 이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즐

겁게 둘러 볼 수 있다. 성균관 전학(典學)을 맡고 있고, 2003년부터 하회마을 3개 권역 동행 해설 안내를 시작하였다. 이 글 속의 이야기는 대부분 류영일 해설사의 설명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다. 마을의 동쪽에 백두대간이 뻗어 내려 태백산에서 갈라져 나온 화산(花山)이 있는데, 산봉우리가 전부 꽃봉오리같이 생겼고 산에 꽃이 많이 피어 춘하추동 어느 때든지 꽃이 많이 핀다고 화산(꽃피)이라 한다. 마을은 600년 쯤 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집들이 들어섰는데 다른 지역에서 남향집이 주류를 이루는 데 비해 하회마을은 큰 기와집을 중심으로 초가집이 원형으로 배치된 점이 특징적이다.

하회마을에는 김해 허씨가 먼저 입향하였고, 향교고을은 광주 안씨의 터전이었다. 여기에 류씨가 들어와 600년 세월의 터전을 닦았다. 허씨의 터전이라고 하는 데에는 옛날 하회마을 사람들이 재미나는 놀이를 만들었는데, 등장하는 인물은 양반, 선비, 초랭이, 영감, 부네, 이매, 백정, 할미, 주지 그리고 소(牛) 등으로 우선 결정하였다. 이때



서애 류성룡 고택(충효당)

총각 하나가 기왕에 빠들어진 양반사회를 풍자하기로 했다면 각시를 업고 도망간 중과 각시 마당도 놓자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찬성했다. 그런데 이 놀이는 철저한 신분과 계급 속에서 아랫것들이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으로 지체 높은 양반들을 신랄하게 조소(嘲笑)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꾸몄기 때문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면 춤추는 자도 끼리게 되고 보는 사람도 흥이 없을 것이므로 탈을 만들어 쓰기로 했다. 그리하여 허도령이 12개의 탈을 만드는 중인데, 허도령을 몹시 사모하는 처녀 하나가 탈 만드는 것을 엿보게 되면서 허도령은 피를 토하며 죽고, 처녀 또한 혼비백산 하여 달아나다 실족사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매탈>은 턱이 완성되지 못했고 하회탈춤에는 턱없는 이매가 등장하여 바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옛날 하회 마을 강가 오막살이집에 안씨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지난 뒤 중이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하여 먹을 것조차 변변치 못해 딱한 처지였으나 스님을 거절하지 않고 재워주었고, 명년 봄 농사지를 종자를 꺼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였다. 안씨는 너무 가난하여 아버지 묘 자

리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던 참인데, 스님은 안씨의 착한 마음과 공손한 대접에 감동하여 묘 터를 잡아주기로 하고 날이 밝자 화산 근처 산중턱을 올랐다. 어느 곳을 택한 스님은 3대 후에 정승(政丞)이 태어나는 자리를 알려 주었다. 하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씨는 현실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묘 자리를 찾아달라고 하여 부친의 묘를 쓰고 말았다.

그리하여 다음 해 가을에 안씨는 곡식을 천석이나 수확하게 되어 당년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류씨는 600년 전 공조전서를 지낸 류종혜(柳從惠)가 길지를 찾아 이주하고자 화산 정상에 올라 3년을 두루 살핀 끝에 수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은 길지이므로 숲을 쳐 내고 집을 지어 거주하게 된 것이

지금의 하회마을 형성 기원이 되며,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1539~1601)과 임진왜란 시 국난 극복에 공을 세운 서애 류성룡(1542~1607) 형제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이로써 하회는 〈허씨 터전에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이란 향언(鄉言)이 생겨났고, 또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옥연정사는 서애 선생이 작은 집을 지어 늪도록 조용히 거처하는 곳으로 삼고자 했으나 집이 가난하여 도무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탄홍(誕弘) 스님이 자청하여 10년이나 시주를 모아 선조19년(1586)에 완성하였고, 처음에는 ‘옥연서당(玉淵書堂)’이라고 했는데, ‘옥연(玉淵)’은 정사 바로 앞에 흐르는 깊은 못의 색조가 깨끗하고 맑아서 마치 옥과 같으므로 서애 선생이 이름 붙였다.

이곳에서 임진왜란의 회고록인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하였다. 『징비록』은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러한 참담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경』에 "미리 지난 일을 징계해서 뒷근심이 있을 것을 삼간다."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서애(西涯)선생의 호는 서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해마다 여름이면 큰물이 들어서 그때마다 서쪽 언덕에 부딪친 물이 얇은 구렁으로 바로 넘어가서 마을은 언제나 보호가 되었는데 바로 그 언덕을 자호로 삼았고, 임진왜란 때엔 자신이 서쪽 언덕처럼 나라를 구하는 역할로 삼았다.

옥연정사에서 부용대편 강 쪽으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출입문을 간죽문(看竹門)이라 이름하였고, 문에는 서애선생이 지은 시를 붙여 놓았으니,

노옹파오수(老翁罷午睡)	노옹이 낮잠에서 막 깨어나,
부수행곡정(負手行曲庭)	뒷집 지고 뜰을 거닐도다.
행처의이란(行處意易蘭)	거닐다가 기분이 더욱 상쾌해 지면,
출문간수죽(出門看修竹)	문을 나서 대 숲을 바라 보네.
적여강풍회(適與江風會)	강 바람 이라도 불어 나부끼면,
청음산빙옥(淸音散氷玉)	옥이 부딪치는 해맑은 소리.
시유고문인(時有叩門人)	더러 날 찾는 이 있는데,
망형수주객(忘形誰主客)	누가 주인이고 나그넨지 몰라라.

대(竹)라는 것은, 그 근본은 굳고, 그 줄기는 곧고, 그 마음은 비었으며, 그 마디는 견고하고, 그 행실은 바르고, 그 기운은 맑고, 서리와 눈을 맞고도 얼지 않는 것을 보면 선비가 그와 같이 본받을 법 하다 하여 옛 선비들은 대나무를 의인화 하여 주변에 가까이 두고 심성을 다스렸다 한다. 부용대 정상에 올라 하



부용대에서 바라본 하회마을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감실
류영일 해설사

겸암정사의 현판 중 안채에 붙은 「虛受療(허수료)」는 배우고 싶으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 준다는 뜻이고, 「겸암정(謙菴亭)」은 주역의 겸괘(謙卦)에 ‘겸손 하고 겸손한 군자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낮춘다.’는 뜻으로 겸암 선생이 실천해 옮겼다.

겸암정 글씨는 스승인 퇴계 이황 선생이 “듣건대 그대가 새 집을 잘 지었다는데, 가서 같이 하룻밤 보내려 하나 말미를 얻을 수 없어 아쉽네.”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보내 준 것이다.

화마을 전경을 바라보고 강물 아래를 내려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며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잦아든다. 화산과 3정승이 난다는 문필봉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천하의 명승이다. 부용대를 지나 내려가면 겸암(謙菴) 선생이 명종22년(1567)에 세우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던 겸암정사가 자리 잡고 있다. 부용대 기슭, 화천 상류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회에서 전망이 가장 빼어난 곳이다. 그렇지만 마을 쪽에서는 낙엽진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여간해서는 보이지 않는다. 겸암정사의 현판 중 안채에 붙은 「虛受療(허수료)」는 배우고 싶으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 준다는 뜻이고, 「겸암정(謙菴亭)」은 주역의 겸괘(謙卦)에 ‘겸손 하고 겸손한 군자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낮춘다.’는 뜻으로 겸암 선생이 실천해 옮겼다.

겸암정 글씨는 스승인 퇴계 이황 선생이 “듣건대 그대가 새 집을 잘 지었다는데, 가서 같이 하룻밤 보내려 하나 말미를 얻을 수 없어 아쉽네.”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보내 준 것이다.

하회마을 지킴이 류영일 해설사의 자택 하정재(河庭齋) 사랑마루 위에는 작은 괴(상자)를 붙여서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감실이 있는데, 하회마을 사람들은 맏집을 제외한 기차집들은 사당을 대신하며 지극정성으로 조상을 모셨으며, 나가고 들어올 때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활의 일원으로서 조상을 살아계실 때와 같이 모시는 풍습을 지금까지 지켜 나가고 있다.

*하회문화지킴이 류영일 해설사님은 그 날 프랑스인 가족의 해설을 맡아 진행 중이었음에도 <우리문화>를 위한 해설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인간 내면의 울림세계

옥중편지를 읽다 (II)

신영복은 현재 서예가로도 명성이 높다.
이도 감옥에서 여러 장기수 선생으로부터
지도받은 결과라 한다.
한문 서체로 익힌 필법은 한글에도 응용해
민중 정서에 맞게 민체, 연대체, 어깨동무체라는 글씨체를
창안해 독특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 20년의 삶이 완전히 인생을 바꾼
진정한 '나의 대학시절' 이었다고 고백했다.
신영복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은 저자가 20여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글이다.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은 1988년 첫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이 시대의 고전으로 기록된 책이다. 저자 신영복은 1941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196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다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특별가석방으로 출소 하였다. 수감 중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후에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것이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이다. 출소 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를 역임하였고 2006년 말에 정년퇴임 하였다. 퇴임 당시 소주 포장에 들어가는 붓글씨를 그려주고 받은 1억 원을 모두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하였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신영복 함께 읽기'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나눔과 소통을 하고 있다.

육사 교관으로 장교였던 신영복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후 충격을 받고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마침내, 그 고뇌와 사색은 20년 내내 이어져 완전히 '인간성이 개조' 되는 내적 자기혁명을 이루어 낸다. 신영복은 교장의 아들로 성장하여 민중의 삶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남다른 애착은 없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밑바닥을 살아온 기층민중과 24시간을 맨살을 부대끼며 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을 통해 자신이 지식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던 창백한 엘리트주의적 관념성과 '먹물성'을 통절히 비

관하고 뼈아픈 반성을 하게 된다. 감옥에서의 삶은 서로가 알몸으로 부대끼며 가식 없이 숨김없이 사는 탓에, 한방에서 오래 살다보니 서로의 과거와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번은 목수출신이 집을 그럴 때 지붕부터 그리지 않고 주춧돌부터 그리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책이나 이론으로 배운 세계가 현실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그간의 인식 틀을 깨부순 것이다. 무엇보다 10여 년간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목공, 염성, 제화공, 재단사 등으로 직접 노동자 생활을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경험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의 인간 개조론을 수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감옥에서의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만남은 이후 그의 사상과 인생관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막연하게 책에서나 보아온 분단과 전쟁의 피투성이 현대사의 이야기를 직접 이를 경험한 빨치산과 투사들을 통해 생생히 들음으로써 ‘피가 통하고 숨결이 이는 화석’ 처럼, 살아있는 역사체험을 한다. 또한, 한학자 출신의 사상 장기수로부터 동양고전과 철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서구사상에 매몰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자존을 깨닫고 고전학습에 몰입한 나머지 이후 성공회대에서 동양철학도 강의할 수 있게 된다. 신영복은 현재 서예가로도 명성이 높다. 이도 감옥에서 여러 장기수 선생으로부터 지도받은 결과라 한다. 한문 서체로 익힌 필법은 한글에도 응용해 민중 정서에 맞게 민체, 연대체, 어깨동무체라는 글씨체를 창안해 독특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 20년의 삶이 완전히 인생을 바꾼 진정한 ‘나의 대학 시절’ 이었다고 고백했다. 신영복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저자가 20여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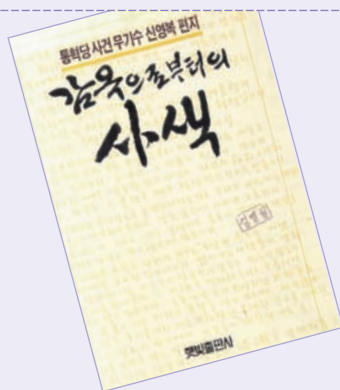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여기저기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어쩌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깊이도 없어 보

일 수 있건만 삶의 진지한 사색과 통찰력이 폭넓게 전개된다. 어떻게 이렇게 꼭 막힌 공간, 감옥이라는 공간,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고 평화스러운 필체를 가질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체념과 포기로 허송세월을 하기가 쉬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그마한 인식에서 인식으로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하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글을 써나갔다. 심지어 인식에서 실행이 안되는 부자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익혔다. 감옥동료들의 과거사를 자신의 실행의 방편을 삼는 것이다. 아마도 상상력의 방식이겠지만 얼마나 기발한 방식의 결과 도출인가. 그런 그이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허물어지지 않고 술한 계절의 바뀜을 받아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신영복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 끈질기게 많은 책을 읽었다. 먼 미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사색을 통해 더욱 큰 생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수님, 계수님, 그리고 조카들에게 띄우는 편지 하나 하나가 큰 가르침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준다. 사회라고 하는 바깥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 것이다. 1988년 첫 출간된 이래 1998년 보다 새로워진 형식과 내용으로 재출간되었다.

새로 출간된 책에서는, 저자의 출소 이후에 발견된 메모노트와 기존 책에 누락된 편지글들을 완벽하게 되살려냈다. 저자가 옥중에 있었을 당시 출간되었던 기존의 책은 1976년 2월의 편지부터 실려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펴낸 책에는 ‘청구회 추억’ 등 1969년 남한산성육군교도소에서 기록한 글들과 1970년대 초반 안양·대전교도소에서 쓴 편지들이 누락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담겨있어 저자의 20대 사색의 편린들과 어려웠던 징역 초년의 면모까지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남한산성육군교도소에서 휴지에 기록한 사색노트는 당시 남한산성에서 근무한 어느 헌



병의 친절이 아니었다라면 영영 없어져버렸을 소중한 기록이다.

또한 저자가 감옥에서 그린 그림, 하루 두 장씩 지급 되는 휴지와 비좁은 봉함엽서 등에 철�필로 깨알같이 박아 쓴 일부 편지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 글의 내용에 못지않은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책이 수신자별로 구성되었던 데 비해 이 책은 시기별로 구성되어 있어 발신자인 저자의 입장이 보다 잘 드러난다. 영어의 몸으로 겪어낸 20년 20일간의 옥중 삶의 흐름이 저자의 고뇌 어린 사색의 결정과 함께 잔잔히 펼쳐지는 이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은,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맑은 거울이자 한 시대의 반듯한 초상이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고전이라 하겠다. 어떤 이는 이 책을 우리 시대의 축복이라 했고, 어떤 이는 파스칼의 〈팡세〉, 몽테뉴의 〈수상〉, 심지어 공자의 〈논어〉에까지 비기면서 이 책을 최고의 수상록이라 하였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빼놓을 수 없는 대화의 방식, 자기주장의 원리를 이토록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해석해준 이 책.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저자 신영복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훈훈하게 느껴지는 에세

이가 시처럼 아름답다.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세상을 꿰뚫어본 저자 신영복에게서 감탄과 더불어 깊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반성하며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 아닌 가 생각된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 (牛步千里 우보 천리)

정수일의 옥중편지인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는, 1996년 체포된 후 2000년 8월 석방될 때까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다. 1996년 7월 세상 사람들은 단국대 사학과에 재직중인 무함마드 간수 교수가 실은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소식을 접하곤 크게 놀랐다. 어느 누구도 그가 아랍계 필리핀인이란 사실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 외국인치고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남한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무척 많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당국에 체포된 그는 혐의를 단순히 인정했고, 그는 간첩혐의로 구속됐다.

이 책에 실린 편지들을 통해 그는 아내와 남한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스스로 드러냈다. 요컨대 자

대

신이 무함마드 간수가 아닌 정수일임을 고백한 것이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등에서 시작해 남한사회에서 정수일로 살아야 할 포부와 인생관 및 학문관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목소리가 들어 있다. 아직도 특수한 처지에 놓인 터라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이 편지모음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일종의 중간결산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중간결산을 감옥에서 한 셈이다.

정수일은 연변에서 태어나 연변고급중학교와 북경대학 동방학부를 졸업했다. 카이로대학 인문학부를 중국의 국비연구생으로 수학했고 중국 외교부 및 모로코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평양국제관계대학 및 평양의국어대학 동방학부 교수를 지내고, 튀니지 대학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말레이 대학 이슬람 아카데미 교수로 있었다.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문학박사), 동 대학 사학과 교수로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5년간 복역하고 2000년 출소했다.

나고 자란 국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역만리 타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정수일. 그는 조선족이었고 북녘이 고향이었으며 중국에서 엘리트 장학생이자 외교관으로 활동 하였고 아랍인으로 위장할 수 있을 만큼 아랍어가 능했으며 드물게도 북녘과 남한에서 모두 교편을 잡았다. 작은 피창으로 사계절이 흘러감을 겨우겨우 어렵직하며 손바닥만한 독방에 갇혀 이윽고 그가 뒤늦게 만난, 고국의 따뜻한 피를 가진 아내에게 또 다른 삶의 반례에 대해 고백했을 때 그는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다. 또한 그의 아내조차 흔쾌히 남편의 외도를 받아들이고 되려 독려까지 했으니 의아할 일이다. 그는 차가운 감방에서 아내에게 그의

평생의 사랑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토로한다. 문화인류학자이자 뜨거운 민족학자로서, 한글과 우리 문화의 지킴이로서 그는 차가운 독방에 상도 없이 엎드려 노구가 상하는 것도 아랑곳없이 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논문을 쓴다. 아내에게 보내는 이 옥중서신들은 흔히들 상상할 수 있는, 아내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나 갇힌 몸체에 대한 탄식보다는 영어의 몸이 되었어도 결코 학문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그의 각오가 배어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상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와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사상범의 신세로 전락한 처지를 한탄하고 춥고 고독하며 그래서 고단한 옥중살이에 쉽사리 지쳐 게을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牛步千里(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의 아내 역시 한 번에 스무 권 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책들의 순환을 위해 거르지 않고 책을 넣어주며 면회를 온다. 환갑나이의 학자가 쓰는 편지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애뜻하고 즉흥적인 사랑의 표현은 없다. 찾아온 아내에게 위로와 하고 경제적 궁핍에 마음을 쓰는 담담한 말들조차 이 '학문'에 대한 못말릴 애정 앞에서는 극히 작은 부분이다. 그러나 그 작은 부분에 담긴 은근한 사랑은 따뜻하다.

그러기에 그 아내 역시 질투 없이 그의 두 번째 사랑에 헌신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정수일이 부인에게 쓴 글속에는 그를 일러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다는 '영화같은 인생유전'이 잔잔히 펼쳐져 있다. 일제수탈을 피해 연변으로 이주한 유랑민의 아들로 태어나 중국의 국비유학생 1호로 카이로에 유학하여 중국의 외교관으로 잘나갈 때 중국인민의 우상인 주은래수상이 조카딸을 소개하며 붙잡으려 해도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북한으로 들어가 활동한 이야기와 통일에 대한 열정을 학문으로 풀고자 들어 온 남한행은 그가 세계를 주유한 거리보다 더 멀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소 걸음으로 수천리 길을 온 그에게 맞닥뜨린

것은 쇠창살의 감옥이다.

감옥은 행동을 억압하는 공간이지만, 사유(思惟)의 공간이기도 하나보다. 선조들이 세계로 발길을 넓혔던 원시안을 저버리고 동족가죽끼리 등을 돌리고 사는 근시안으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학문의 열정의 불빛을 밝혀들고 찾아온 그의 정신은 ‘우공이산(牛公移山)’의 우직함이 배어있다. 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행간에서 조국사랑과 학자다운 인식의 기틀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는 아마도 문명교류사를 통하여 세계로 기세를 떨치는 조국의 위용을 꿈꾸는지 모른다. “수류화개(水流花開, 물이 흐르고 꽃이 피다.) 삶이란 언제 어디서나 늘 물이 흐르고 꽃이 피듯이 팍팍하지 않고 싱싱하게 이어져 알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며 이를 수감생활 중 좌우명으로 삼았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정진해온 정수일, 옥 바깥에서도 아마 그러하였을 듯이 옥 안에서도 끝없는 공부와 저술로 일관해온 그 신념이란 게 무엇일까, 무엇이 그의 삶을 이토록 확신케 했을까 하는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입장에서 생각의 거리를 충분히 던져주는 책이라 하겠다.

야생초 편지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말하는 야생초, 서양의 화려한 꽃 속에 파묻힌 채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만 가던 우리 나라의 꽃이다. 진한 향기의 장미와 하얀색 백합에 빠져 야생초를 잊어버리고 또한 야생초에 관한 이야기라도 하면 다들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리는 우리 나라 사람들. 그렇게 우리의 야생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면서 우리 나라의 꽃이라는 명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우리 나라의 야생초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닌 유식한 박사들도 아닌 감옥에서 살고 나온 황대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만성 기관지염을 고치기 위해 야생초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야생초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이곳저곳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야생초를 놓지 못하는 야생초 연구가가 되어버렸다.

그의 야생초에 대한 애정을 여동생 미선에게 야생초의 관찰담과 함께 교도소의 일상을 편지글로 써 보냈는데 교도소는 개인이 기록물을 보관할 수 없기에, 작가의 경험과 소회를 담아 수시로 글로 적어 편지로



보낸 기록물을 오랜 세월이 흘러 감옥 출감이후에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것이 〈야생초 편지〉이다. 저자 황대권은 서울농대를 나와 미국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나이 30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이후 13년 2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책은 저자가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 후 형기를 마칠때까지 운동장 구석에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어 키우며 연구한 100여 종류에 달하는 야생초의 생태에 대해 직접

그 린 그림을 곁들여 가며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감옥 안에 그렇게 많은 야생초가 자라는 게 아니라 사상범들에게 봄/가을에 한 번씩 주어지는 일종의 소풍인 사회견학을 통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땅에서 캔 것들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들여와 텃밭에다 옮겨 심은 것들을 키우며 관찰한 기록인데, 스스로 풀들을 ‘옥중동자’라고 부르고 마가린 통과 컵라면 용기에도 들풀을 심어 가꾸고 거미와 청개구리와도 친구가 되어 무료하고 할 일 없는 힘든 감옥생활을 이겨 나가는 과정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식물 관찰기록의 형식을 빌린 구도일기에 가깝다. 간첩으로 몰린데 대한 분노, 지옥과 같았을 고문과 징벌방 생활을 겪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친 영혼과 망가진 몸뿐이었을 것이다. 만성기관지염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면서 교도소 담장 곳곳에 난 야생초를 먹기 시작하면서 야생초의 벗이 되어버린 그는 감옥 마당에서 무참히 뽑혀 나가는 야생초를 보며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밟아도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야생초의 끈질긴 생명력을 닮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잡초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분신처럼 키웠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억울함마저 밝히지 못하고 오해가 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과 분노가 있기 마련인데 긴 세월 징역을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야 오죽했으랴! 육체적 고통과 이픔보다는 억울함에 대한 분노로 파괴되는 영혼이 더 큰 고통이었을 텐데 징역생활을 즐기는 생태주의자로 바뀐 것은 불교경전에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결과라 하겠다. 그의 야생초 사랑은 그의 작은 야생초 밭으로 시작된다. 그는 냉이, 제비꽃, 꿩이밥, 씀바귀, 마디풀, 방가지뚝, 지칭개, 개쑥갓.... 등등을 키우기 시작했다. 사회참관을 나가는 날에는 야생초란 야생초는 다 뜯어와 옮겨 심었다. 마가린 통에 야생초를 심어놓고

매일 사랑과 관심으로 키우기도 했다. 모듬풀로 물김치를 담아먹고, 야초차에 탐닉을 하게 되고, 야생초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곤 했다. 야생초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다시 야생초처럼 일어나 그는 말한다. “우리 인간만이 생존경쟁을 넘어서서 남을 무시하고 제 잘난 맛에 빠져 자연의 향기를 잃고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여 나만이 옳고 잘났다고 빠기는 인간들은 크고 작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타고난 제 모습의 꽃만 피워내는 야생초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고... 그렇다 죄도 없이 꽃 같은 청춘을 1평 남짓한 독방에서 지내야 했지만, 저자는 긍정의 힘을 길렀다. 교도소 운동장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야생초로부터 생명과 생태의 원리를 깨닫고,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느꼈다.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의 염원처럼 우리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겸손해하고 함께 살기를 꾀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일텐데.... 사람이 기약 없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월을 옥중에서 살아간다면 살아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옥중의 삶속에서 오늘을 건뎌 내게 만든 것은 편지쓰기였다. 우리나라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면서 이들이 썩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독서와 편지쓰기를 통해 사람에 대한 향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옛보다 왕실의 편지를

인간의 진화 - 한문과 편지

신분안아음각취

신분안아음각취
래오니십이주된
스와호음다니어
제봉석보음고
든반갑스와
호오며
한아바님저온
평안호오식다
온기깃브와
호호음
다
元孫이

비록 오늘날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우수성을 꼽아
인류의 가장 훌륭한 문자라 평가하고 있으나,
한글이 창제된 조선시대에는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욱 그 전하고자 하는 사연도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리라 추측되는 것이다.
그 마음과 생각으로 조선시대 왕실사람들의 편지를
옛보기로 한다.

살아가면서 편지를 받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까? 편지라는 단어만을 떠올려도 가슴이 뛰는 설렘이 있다.

장마철 편지를 보낼 때에는 혹 봉투에 글씨가 번질까하여 초를 정성껏 문질러 예방하였던 기억도 새롭기만 하다.

요즘이야 너나없이 이메일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편지가 비에 젖는 걱정은 없다지만 가슴이 뛰는 설렘은 사라진지 오래다.

초등학교시절 꽃씨를 편지봉투에 담아 제출하는 숙제도 있었다. 벌에 쏘이면서도 코스모스, 과꽃, 봉숭아 등등의 꽃씨를 채취하였던 기억도 새롭다. 그렇게 모인 꽃씨로 학교며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었었다.

그 시절이 그림그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정겹게 하던 편지봉투 또한 그림기만 하다. 한편 당시 누나들이 주고받던 편지에도 궁금증이 일었다.

어떤 사연일까? 간혹 발신자가 기록되지 않은 편지를 보면 궁금증은 더욱 커지기만 하였었다.

그 설렘과 궁금증으로 왕실의 편지를 엿본다. 도대체 왕실의 사람들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을까?

특히 궁금한 것은 임금의 편지이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임금께서 누군가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사

람을 불러 직접 전하여 수고로움을 덜었을 것 같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실은 물론 임금께서도 직접 편지를 써 마음을 전하고 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것도 어려운 한자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 극찬하고 있는 한글로 말이다.

비록 오늘날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우수성을 꼽아 인류의 가장 훌륭한 문자라 평가하고 있으나, 한글이 창제된 조선시대에는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욱 그 전하고자 하는 사연도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리라 추측되는 것이다.

그 마음과 생각으로 조선시대 왕실사람들의 편지를 옛보기로 한다.

하나, 원손시절 정조의 편지를 엿보다.

“상품의 귀후 평안후오신 문안 아옵고저
부라오며 뵈옵디 오래오니 섭섭 그림소와 하도
어제 봉서 보옵고 든든 반갑수와 후오며
한아바님 거오셔도 평안후오시다
후온니 깃브와 후옵누이다.
元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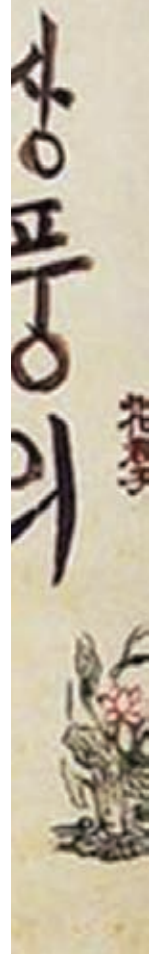
이는 숙모님께 보낸 편지이다. 비록 글씨도 문맥도 서툴기만 하지만 숙모로부터 편지(書)를 받고 답한 편지글에 어린 원손의 예의와 정이 듬뿍 전하여 온다.

“숙모님! 차가운 가을바람에 평안하신지 문안을 여쭙기 위하여 편지를 드립니다. 숙모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할아버지께서도 평안하시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사연인 것이다.

둘, 청나라 심양에서 장모님께 보낸 봉림대군(효종)의 편지를 엿보다.

효종께서 봉림대군 시절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 있으면서 사신(使臣)편에 보내온 장모님의 편지에 답한 것이다.

귀
영
우
평
안
후
오



[illegible]

한문을 귀하게 여기고 한글을 천하게만 여겼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왕실에서 한글로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편지는 안부를 묻고 답하면서
정을 나누던 수단이 아니었는가?
이것으로 미루어 왕실에서도
사람과 사람간의 진솔한 대화를 매개하던 것이
한글이었음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 맞춤법도 문법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글을 더욱 옹고고 튼실하게 하는
한 과정이라 여긴다.

편지에는 장모님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고마움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담고 있다.

또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다 노구(老樞)의 몸으로 멀고 먼 청나라까지 잡혀온 신하 김상헌에 대한 애뜻함이 묻어난다.

훗날 성군으로서의 효종의 됃됨이를 짐작케 한다.

“새해에 기운이나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심양
으로 들어온 사신행차 편에 보내주시는 장모님의 편
지를 보니 장모님을 대하는 듯합니다.

이렇다 드릴 말씀은 없으나, (다만) 청음(김상헌)께서 늙으신 몸으로 어렵게 지내고 계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차가 바쁜 관계로 짧게 소식전합니다.”



셋, 오빠에게 보낸 명성황후의 편지를 엿보다.

명성황후께서 오빠인 민승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비록 예쁜 색지에 그림 또한 그려져 있어 아름답지만 그 사연만은 명성황후의 답답한 심정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대 대원군과의 힘겨루기에서 오는 고통이 전하 여지는 듯하다.

"밤사이 탈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주상과 동궁(순종) 모두 잘 지내고 계시다니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몸도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였다.

한글로 쓰여진 왕실의 편지글을 다 보고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일상에서 한글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 여긴다.

한문을 귀하게 여기고 한글을 천하게만 여겼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왕실에서 한글로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편지는 안부를 묻고 답하면서 정을 나누던 수단이었는가? 이것으로 미루어 왕실에서도 사람과 사람간의 진솔한 대화를 매개하던 것이 한글이었음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오늘날 맞춤법도 문법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글을 더욱 옹고고 튼실하게 하는 한 과정이라 여긴다.

모쪼록, 한글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각 분야에서 불처럼 일어나 한글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원이 아버지에게

여인의 사부곡(思夫曲)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는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고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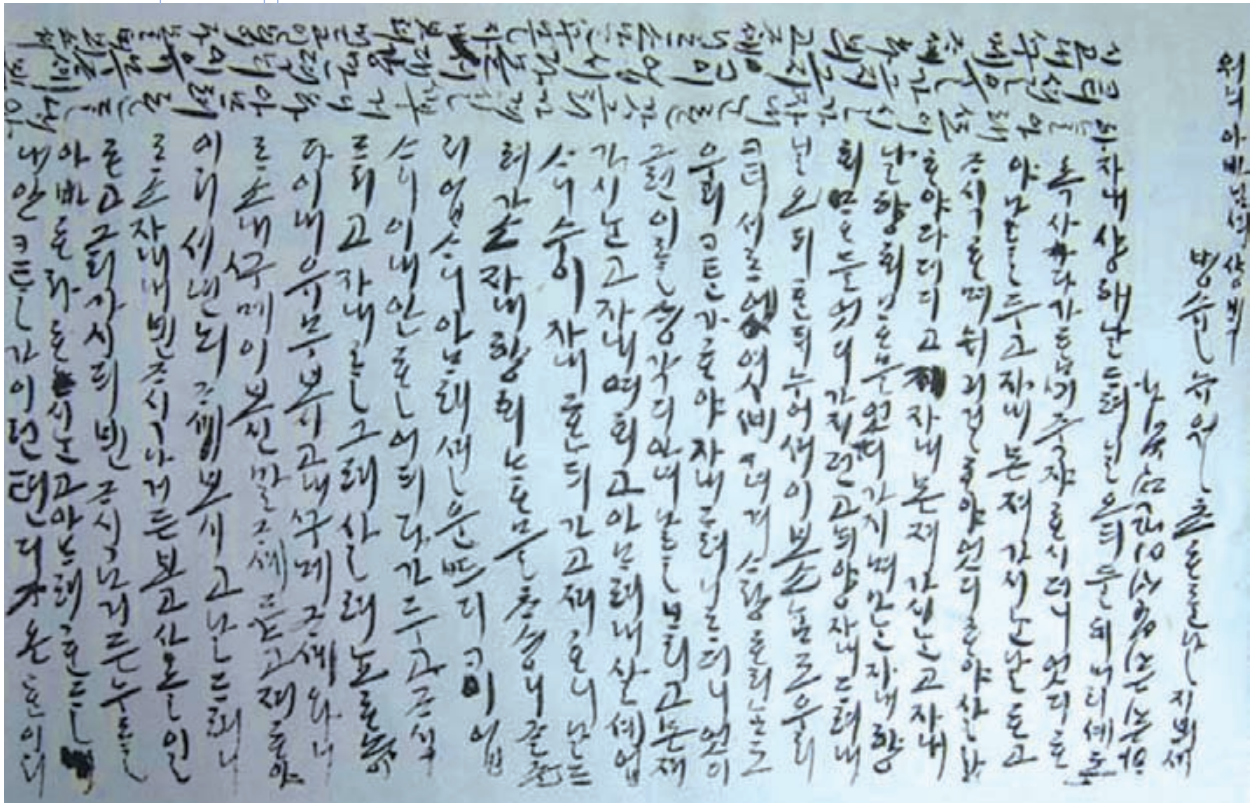
어찌 그런 일들 생각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해도 나는 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유월 초하룻날 아내가

편지는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글이다. 지금 세상에야 e-mail 보내는 것조차도 엄두가 안 나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전하곤 한다.

심지어는 사귀던 연인들조차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기다림의 글, 편지... 그런데 조선 시대 영원한 이별의 아쉬움을 애절하게 풀어 낸 이 편지는 쓰여진 지 412년 만인 1998년 4월 경북 안동시 정상동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고성 이씨 문중의 묘를 이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고성이씨 15세 이명정(李明貞, 1504 ~ 1565)의 아내인 일선 문씨(一善 文氏)가 미이라 상태로 발견되었고, 약 20여일 후인 4월 24일 그의 손자인 이응태(李應台, 1556~1586)가 염습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발굴되었다.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신(屍身)은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로서 턱에는 짧은 수염이 나 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누워 있었다.

미이라 상태로 발견된 시신도 화제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콧날을 시큰하게 한 것은 시신의 가슴 부분을 덮고 있던 한글 편지였다. 병석에 누워 있던 남편이 31살의 젊은 나이로 죽자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 눈물을 머금고 한 자 한 자 써 내려갔다.

남편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아내의 안타깝고 애통

한 사랑은 구구절절 글자마다 배어있고, 작별하는 아쉬움은 편지의 여백조차도 빼곡히 채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저승 갈 때 신고 가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삼줄기와 함께 정성껏 삼은(짚) 미투리와, 남편이 소중히 여겼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 속의 아이에게 줄 배냇저고리까지 함께 들어 있어 죽은 남편의 넋을 위로하려는 각별했던 정성을 알 수 있다.

편지의 크기는 가로 58.5cm, 세로 34cm이며 봉투는 따로 없다. 편지의 바깥 면에 〈원이 아버님께〉라는 수신자 표시를 쓰고, 안쪽 면에는 사연과 함께 발신자와 편지를 쓴 날짜(병술년 6월 초하루)가 적혀 있다.

‘자네 상해 날 드려’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못다 쓴 사연을 다시 종이를 옆으로 돌려 위쪽 여백 5cm 지점에서 두 번째 내용인 ‘하늘 아래 쏘이실가’로 이어진다. 그래도 지면이 부족하므로 다시 돌려 ‘그지그지 업서 이만 적노이다.’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짜와 발신자는 다시 편지를 돌려 ‘병술 뉴월 초하루 날 지씨서’라 적었다. 날짜와 발신자의 이름은 마지막 사연을 쓴 끝에다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편지는 결국 가장 나중에 와야 할 발신자 표시가 편지의 앞머리에 놓이게 되었다. 편지가 쓰여진 병술년은 1586년(조선 선조 19년)이다.

이응태는 고성이씨의 17대 손으로 아버지 이요신(李堯臣, 1523~1611)의 2남 3녀 중 둘째 아들이다. 이응태는 죽기 전 얼마간 병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남편이 병석에 눕자 아내는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함께 엮어 정성껏 미투리를 삼았으나, 남편은 끝내 그 신을 신어 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미투리를 썼던 한지에 “이 신 신어 보지도



못하고....”라는 글귀가 남아 있어 더욱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더한다.

형님은 젊은 나이로 죽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며 접부채에 만시(輓詩)를 쓰고, 아버지는 생시에 아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아내는 남편이 평소에 입던 옷가지와 꽃무늬 비단 저고리를 관 속에 넣어 주었다.

현재, 이 편지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현대문 번역은 임세권 교수가 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잦은 헤어짐을 겪고 있다.

흔히 말하듯 신발을 바꿔신 듯 함부로 사랑을 바꾸고, 헤어짐의 글조차도 문자 메시지로 대신하고 마는 세태를 보면, 424년 전의 이 편지에서 부부의 고귀한 가치, 사람의 소중한 인연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포항오페라단이 '2009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에 출품한 창작 오페라 '원이 엄마'가 전석 매진돼 관심을 끈 바 있다.

'원이 엄마'는 조두진 작가의 대본에 조성룡 안동대 음악과 교수가 작곡한 3막 오페라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창작지원작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이다. 원이 엄마의 편지와 미투리 한 결례를 소재로 시공을 초월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토대로 조두진 작가가 쓴 소설 '능소화'는 세계 23개 언어로 28개국에 동시 발행되는 인문지리 잡지 'National Geographic' 2007년 11월호에서 '사랑의 머리카락(Locks of love)'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 '원이 엄마의 편지'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 'एं티퀴티' 2009년 3월호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와 함께 실린 안동대 의류학과 이은주 교수와

표지와 함께 실린 안동대 의류학과 이은주 교수와
사학과 임세권 교수가 공동집필한
'응태의 무덤 : 한 조선의 인물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편지'
연구논문은 2007년 2월
스페인 카나리제도에서 열린 세계 미라 학회에서 발표돼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

사학과 임세권 교수가 공동집필한 '응태의 무덤 :
한 조선의 인물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편지' 연
구논문은 2007년 2월 스페인 카나리제도에서 열
린 세계 미라 학회에서 발표돼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다.

원이 아버지에게
박 정 애(시인)

행여 농칠세라
병술년 몇 날 몇 밤을 새워서
삼줄기와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삼았지요.

구천에 붙들려
사백 년 만에 눈을 뜨니
당신은 손 모으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마투리는
씩씩 앓았는데 나는,
안동시 정상동 검찰청사 앞에서
돌이 되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당은
늘 시끄러워서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미투리만 끌어 안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우스운 오월
편지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떠들다가
나른한 오후 찜에 돌아가겠지요.

그 때쯤 슬며시 오신다면
미투리 신고 오신다면
원이 아버지

*박정애 | 시인, 철도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포항문
학회와 울릉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월을 보든 친히 보든 못 본 듯 내 반기나 못 본 듯
 글까지라 글이 넘이 그이 어서 글며 글월 되리니
 날 수 풀은 낮 치쳐 온 후야 온 글이 어찌이 제는
 머릿수니 다 다 풀리는 각별은 그 글이 날 풀리 어서 되
 여왕의 글 제 주 흥이 심히 그 글은 민망 글 더 타
 후는 이 글 글은 글은 내 글 글이 실을 글은 글은 글은
 글이 글월 리 여 글은 글은 맛 더 나 벗 해 날 드러 수 현 노 타
 글여 시나 글이 번 글 글은 글은 글은 글은 글은 글은
 이 리 덕 수며 글 내 글 노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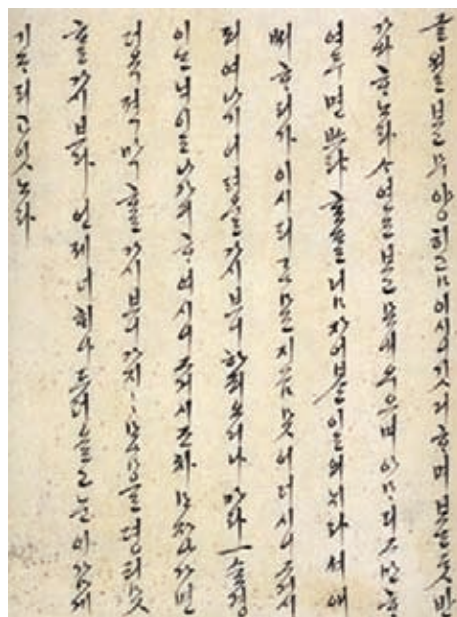
인선왕후 어릴 번 글을 쓰다 자미현 박종희



한글 편지

인선왕후(仁宣王后)

글월 보고 친히 보는 듯 든든,
 못내 반기나 오늘도 한가지라 하니
 마음이 가이 없어하며
 그들림(중기가 거들 떠 오르는 것)이
 날 수를 날날이 채운 후에야 좋아지니
 아직 이제도 멀었느니라.
 다른 데는 각별하게 괴롭고 아픈데 없으되,
 열이 오르내릴 때 두통이 심히 괴롭고 민망하더라.
 요사이는 즐거운 딸들이 없으니
 실로 답답하고 섭섭하니 하루가 열흘만 같더니
 옛새 날 들어온다 하였으니
 눈에 곧 보이는 듯 하고, 든든해 하노라.
 이리 적으며 못내 웃노라.



인선왕후 친필

조선 제17대 효종대왕의 비(妃),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가 자신이 병석에 누워 있던 중에 공주로부터 온 문안 편지에 대하여 답장한 것이다.

마침 공주는 종기병을 앓고 있었기에 공주의 종기병을 걱정하면서 날수를 다 채워야 낫다고 하니 아직도 멀었다고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공주가 궁궐에 들어오게 될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루가 열흘인 듯 기다려지던 중에 옛새 날 입궐한다고 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듯 반갑고 든든하여 기쁜 웃음을 지으며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다.

인선 왕후의 한글 편지는 70여 편이 전해오는데 특히, 공주들과 오간 편지가 많다.

인선왕후는 덕수 장씨. 아버지는 신평부원군 장유(張維)이며 어머니는 우의정을 지낸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1618년(광해군10) 12월 시흥 장곡동 안골마을에서 출생하였고, 14세에 봉림대군(효종)과 혼인하여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 볼모로 가서 8년간 심양에서 머물 던 중, 그곳에서 현종을 낳았다.

이후 소현세자는 귀국 후 독살로 의심되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으며, 한 달 뒤 봉림대군이 귀국하여 세자로 책봉되었다.

효종 즉위 후 인선왕후는 국관을 근절하고 금주령을 내리는 한편, 이불의 색을 적색과 청색의 두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전시에 군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1659년 효종은 머리에 난 종기에 침을 맞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채워 10년 만에 승하였다. 이로써 북벌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인선왕후는 현종과 6명의 공주를 낳았는데, 체격이 무척 뚱뚱했다고 전하며, 1674년(현종 15) 57세로 사망하였다.

효종이 묻혀 있는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영릉(寧陵)에 쌍릉으로 안장되었다.

자미현 박종희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역임

한글 편지 추사 선생의



영어 'Letter'의 의미나 동양에서 서(書)·간(簡)·찰(札)·한(翰)·척(尺)·독(牘)·글월·언간(諺簡)·수지(手紙)·편지(便紙)의 용어 성립배경을 볼 때 편지는 문서와 기록의 원형(原型:Archetype)이라고 볼 수 있다.

편지는 생활의 진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어문학 역사학 민속학적 가치는 물론 직접 종이 위에 생 각나는 바를 적어 내려가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적인 필체와 행간의 구성에 자유분방함이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데 서예사적으로도 글씨공부와 감 상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추사체(秋史體)' 그 자체에 집중되어왔고, 그것을 만들어낸 대 예술가로서 '김정희'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거나 정작 '추사체'를 이야기 하면서 한 몸에서 나온 추사의 한글은 그것과 별

도로 취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추사가 부인 예안(禮安) 이(李)씨에게 보낸 한글편지는 ‘추사체와 추사한글’ ‘추사 한글 편지의 어문학·민속학적 가치’ ‘중손의 책무와 지아비로서의 사랑’ ‘유배지 삶의 애환과 고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사의 한글편지는 고 김일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유편 6통을 포함하여 총 40통이 알려져 있다.

며느리에게 보낸 마지막 2통을 제외하면 시기 고증을 기다리는 보유편 6통을 합해 38통 모두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로 추사의 생애에서 30대 40대 50대에 걸쳐 두루 발견되고 있으며 그 무대 또한 부인과 헤어져 있었던 서울과 예산을 중심으로 대구 평양 고금도 제주도 등지가 되고 있다.

추사한글의 조형특질

한글 자모(字母)의 점획은 15세기 창제당시 고전체(古篆體)에서 시대별로 필사(筆寫)에 대한 속도와 필사자의 미감(美感)이 바뀔에 따라 18·19세기에는 한글의 전형이라고 하는 ‘궁체’의 점획으로 바뀌었다.

한글 자모의 결구(結構)는 한자와 같이 정방형(口)구조가 기본이인데 글자의 중심도 창제당시(15세기)에는 한자와 마찬가지로 口 한가운데 배열되었다.

그러나 추사 당시(19세기) 궁체에서는 이미 글자의 중심이 우측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추사한글은 자모의 점획이 고전체와는 달리 이미 양식적으로는 궁체의 범주 속에 포함되지만 글자 중심이 한자와 같이 여전히 글자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점과 한글자모의 철자 형태와 결구가 자유롭게 口를 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이지만 궁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사의 한글은 흘림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용묵(用墨)과 운필(運筆)의 측면에서 동시대의 궁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글편지에서 보이는 필획의 태세(太細:굵고 가늘)와 곡직(曲直:굽음과 곧음)의 대비, 방필(方筆:모난 획)과 원필(圓筆:두리둥실한 획)의 조화, 그리고 용묵(用墨)에 있어 필속(筆速)에 따른 윤갈(潤渴:먹의 퍼짐에 있어 진하고 마름정도)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은 추사의 한자편지나 시고(詩稿)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추사의 경우 한글과 한자가 필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증거이다.

추사 한글 편지의 어문학 가치

특히 추사의 한글편지에는 서울 대구 평양 고금도 제주도 예산 등지로 무대가 바뀌면서 호방했던 추사의 30대 사십대 모습, 이를 테면 자신을 영호유객(嶺湖游客)¹⁾이라고 칭하거나, 평양기생 죽향이와의 염문을 확인할 수 있다.

18 나는 평양이오며 집은 여도 잇고 잇소니 거셔만 흥아도 다쁜 의심흥실 듯흥오나 너집(李室)의 편지가 다 거즌 말오나 고지 듯지 마운, 죽말이라 흥고 언제 뵈슈지면(白首之年)의 그런 것 곁의것설엇가고 못습.

그리고 당시 지역의 풍속이나 사회상, 그리고 특물산이나 풍토병도 나타난다.

21 굵이 짜도 생히 보거 여려본뻔 뽕종 달 안희도 보고 여윌야 두애 달 한희 보았난 거세 찻제 생히 묻거 못습.

추사의 한글편지에는 이와같이 당시의 구어적 어미(語尾)나 존대법(尊待法)에서부터 축약이나 생략된 문체, 그리고 어휘에서도 희귀어 특수어 방언 이두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음식 의복 질병 등 당시 조선의 문물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중손의 책무와 지아비로서의 사랑

추사는 우리역사상 가장 뛰어난 서예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림·시문(詩文)은 물론 유불선(儒佛仙)을 두루 통한 경학자(經學者)이자 급석고증학에 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추시는 경주(慶州) 김(金)씨 월성위가(月城尉家) 종손(宗孫)으로서 제사는 물론 양아버지(노영(魯永/1747-1797))와 친아버지(노경)을 동시에 모셔야 할뿐만 아니라 사별한 전처(한산 이씨(韓山 李氏))와 후처(예안 이씨)의 지아버로서, 동생(명희(命喜/1788-1857)·상희(相喜/1794-1861))와 서자(庶子)(상우(商佑/1817-1884))·양자(養子)(상무(商懋/1819))를 둔 형님이자 아버지로써 편지에 묘사되는 추사의 모습은 결코 당시 사대부들이 겪음직한 일상사로 치부해버릴 수만은 없는 사연들이 들어있다.

40통 편지의 핵심 내용을 예안 이씨 건강(本증) 문제, 유배지의 질병 음식 의복에 관한 사항, 종손의 책무로서 제사와 종부 양자를 맞이하고 손자를 보는 일 등이다. 예컨대 아내에게 자신의 건강이나 안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지아버로서 아내의 안부나 건강을 묻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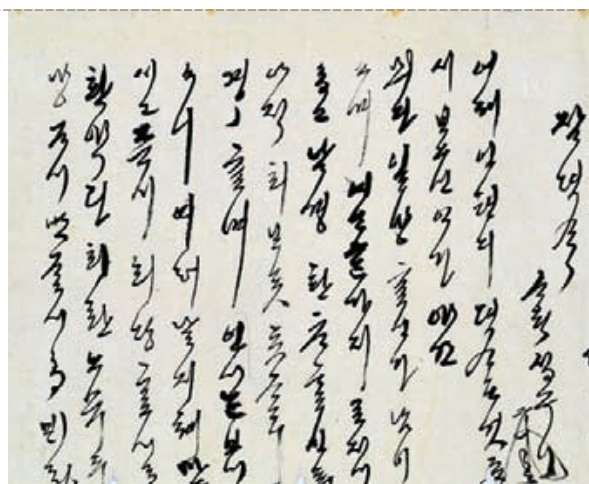
처음 33세 때의 추사 한글편지 11통은 사대부의 권위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생기발랄함이나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부모를 기다리는 심정의 사랑이나 애교이다.

01 그 수에 일편(人便) 및 수오내 편지 못 보오나 못그려워 아내 후대 계우시옵. 나는 우물어 성의 성 * 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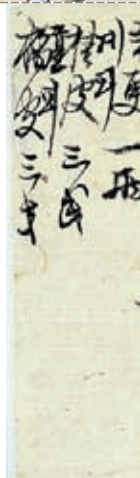
그러나 부인 예안 이씨는 애초부터 본증(本症)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40대 중반에서부터 본증이 극에 달해 부인이 죽음에 이르는 유배지에서의 사랑은 현실적인 것을 넘어 차라리 숭고하기까지 하다.

26백장 잘 잊노라 후오서내 일습에 열답지 아내후오내 넘네한 무궁후 오대 부책 개 호 물로포만 대지 따오서고 미생나 취해와 잊는 부집을 곁 각후오서 잘은 신원(新元)후와 기우서고 하리오며

종손의 책무도 부모를 모시는 일에서부터 아들 손자의 탄생과 돌잡기, 양자를 들이는 일, 며느리를 보는 등의 혼사, 회갑, 그리고 가족의 죽음이나 제



1. 소치(小痴) 허유(許維, 1809-1892)가 그린 〈추사 초상화〉 간송미술관 소장.
2. '元春'이라는 자신의 자(字)를 이용해서 만든 추사의 여러 가지 사인과 수결
3. 〈장동본가의 추사가 온양의 아내 예안이씨에게 쓴 편지〉 1828년(43세) 4월 19일, 30.6*41.3cm(편지) · 30.8*6.1cm(봉투) 먹남서당 소장.
피봉에는 「상장」이 보인다. 추사는 본문의 화면구성에 있어 한글 특유의 정확과 그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글자와 행간을 윤갈(潤渴)이 두드러지는 용묵과 침착 통쾌한 윤필로 경영하면서 일상의 편지글을 은연중에 예술로 끌어올리고 있다.
4. 1841년 10월 1일자 협서로 추정되는 편지.
추사의 글씨에서 보기 드문 국한문 혼용으로 까칠까칠한 필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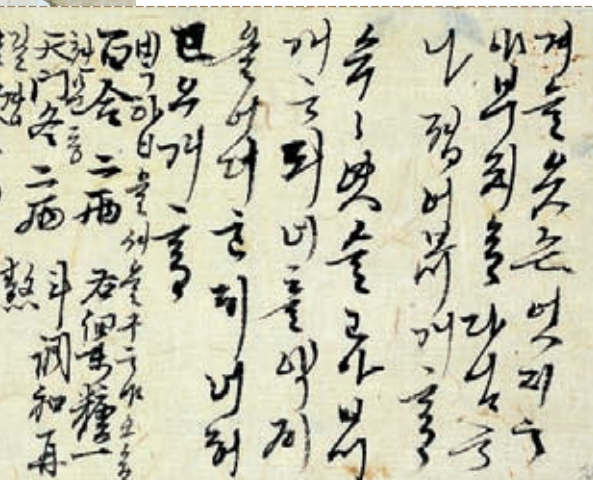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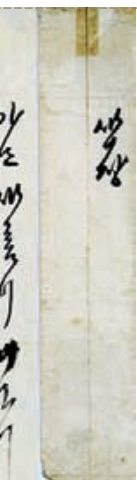
사 등의 경주 김씨 월성위가 종손으로서 본가와 처가 집안 대소사에 대해 일일이 챙기고 있다.

26 여누리라는 전정(前庭)이 지어질 오후오내 그 수에 우물어 사마습. 황 제선을 아니나 무수에 승선후로고 할여니 일습은가 넘네오에 감지워 오 하리오며 후오나 낙정(樂正)은재한 말 무습고 성계후로.

유배지 삶의 애환과 고통

추시는 55세 때인 1840년(헌종6년) 9월 2일 유배명령을 받고 10월 1일 대정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는데 편지에는 먹거리를 구함에 있어 곤란함과 까다로운 입맛, 의복문제, 그리고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목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21 습어 재도 천의 부개 여러분씩 팔습 달 만희도 모고 권행하 두대 달 만희 오습남 거서 잊지 성의 성가 보습.



기 조선의 사대부가의 보편적인 삶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사연의 구절구절에는 우리가 신격화되기까지 한, 그래서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추사의 전혀 다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추사는 오히려 보통사람보다 더 보통사람이었던 것이다.

연달아 보내는 편지, 동동 아내소식을 기다라는 모습에서 급한 성격이나 부인으로부터 입에 맞는 갖은 음식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입맛도 알 수 있다.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21 세종이 내게 온 것만 보아 다 아라 할지 못하 고로 해서 갖은 여원(御園)을 탐지 못함으로 일지거 현상(現狀)과 형의 정(情)에 맞지 못함은 저 속(素)은 어디 내게 보지하여 관여(觀與)하옵시라. 사물(事物)은 한 도(道)에 이르면 다 소관(小管)이 보내게 할라 주옵. 그 하나(하나)는 전(前)은 어디 보내어 무질(無質)을, 개(改) 문(文)의(의)에 관(觀)하옵시라. 오스(吳斯)도 잊는지 무라 보옵.

22 개종의 여원(御園)을 탐지 못함으로 일지거 현상(現狀)과 형의 정(情)에 맞지 못함은 저 속(素)은 어디 내게 보지하여 관여(觀與)하옵시라. 사물(事物)은 한 도(道)에 이르면 다 소관(小管)이 보내게 할라 주옵. 그 하나(하나)는 전(前)은 어디 보내어 무질(無質)을, 개(改) 문(文)의(의)에 관(觀)하옵시라. 오스(吳斯)도 잊는지 무라 보옵.

이러한 추사 한글편지는 추사와 예안 이씨 사이에서 오고간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역으로 여기서 우리는 추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볼 수 있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시나리오인 만큼 이것을 통해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당시 18세

- 1) 嶺南, 忠淸 地方의 여행객이란 뜻. 이즈음 生父 魯敬이 慶尙監司로 있었음.
- 2) 秋史의 妹氏 7명 가운데 5명이 李氏 門中에 出嫁하였음. 그 중의 한 사람.
- 3) '그런 것에 거리끼겠습니까'.
- 4) 秋史의 庶子 相佑를 가리킴. 系子 相戀는 이 때에 비로소 入贅하였음.
- 5) 重病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回復함.
- 6) 敬遠공으로 쓴 메주로 담가 빛이 까맣게 된 간장, 또는 진간장.
- 7) 養家의 셋째 누이가 尹景成과 혼인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인 듯함.
- 8) 바탕이 두껍고 빛이 누르스름한 명주.

共通禮節

공동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국민의례 (2)

2. 애국가(愛國歌) 제창(齊唱)

가. 국가(國歌)의 의의

국가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와 소망, 역사, 전통, 기상, 바램, 다짐 등을 가사로 하고, 장중하고 감동적이며 부르기 쉬운 곡을 붙여 모든 국민이 애창하며 소중히 여기고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행할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에 반드시 국가를 제창함으로써 나라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는 데 일체감을 조성한다.

우리나라는 국가(國歌)를 따로 갖지 않고 애국가(愛國歌)를 국가 대신 제창 한다.

나. 애국가 제창법(1982. 10. 15. 국무총리 지시 제23호)

- ① 국민의례를 행할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에 반드시 애국가를 제창 한다.
- ② 애국가 제창은 4절까지 모두 제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부득이 한 경우에는 1절만 제창 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경우에는 악기에 의한 애국가 연주나 특정의 합창단 또는 지정된 사람의 독창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에 참석한 사람은 애국가의 연주나 합창·독창이 끝날 때까지 부동의 자세로서 있어야 한다.
- ④ 어떤 경우여라도 애국가의 노랫말을 달리 고쳐 부르거나 곡을 변조해 불러서는 아니 된다.
- 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애국가 가창이나 연주가 들리면 부동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 애국가의 유래(由來)

우리나라에서는 '애국가' 라는 제목의 시(詩)나 노래가 처음으로 나타나기는 서재필(徐載弼)이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그 신문의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주독립 사

상과 자아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개화시(開化詩)가 '애국가'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러다가 애국가로 처음 가창된 것은 1896년 11월21일 독립문 정초식(定礎式)에서 윤치호(尹致昊)가 짓고 당시 배재학당의 음악교사인 '번커어'가 영국의 민요곡을 붙여 부른 것이다.

“성자 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 수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후렴 :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애국가의 후렴이 현재의 애국가 후렴과 다른 점에 유의할 것이다.

현재의 애국가는 윤치호 작사설과 안창호(安昌浩) 작사설이 있는 바 1896년의 독립문 정초식에서 부른 애국가의 후렴과 현재의 애국가 후렴이 같지 않으나, 윤치호가 자기 작품이라면서 1908년에 재판 발행한 '잔미가집' 14장에 수록한 애국가가 현재의 애국가와 일치해 1907년에 윤치호가 작사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윤치호는 4절에 “임금을 섬기며.....”라고 했는데 “충성을 다하여.....”로 수정한 것은 안창호라는 설이 유력하게 전해지고 있다.(敎會報에 登載)

이렇게 지어진 애국가는 처음에 '아일랜드'의 민요곡이 붙여져 불리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작곡가 안익태(安益泰)가 1935년에 '빈'에서 현재의 곡을 붙였다. 그것이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식으로 국가 대신 불리게 되었다.

라. 애국가의 뜻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1900년대 초의 살벌한 외세의 각축 속에서 기울어지는 국운을 일으켜 자주 독립하려는 슬기와 지각이 국민의 여망과 함께 함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가와는 다른 의미가 숨겨진 것이다. 우리는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조상들의 숭고한 얼과 슬기를 되새기며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영원성을 깊이 다져야 할 것이다.

제1절 | 우리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제2절 | 나라를 지켜온 조상들의 기개를 나타냈다.

제3절 | 나라를 위하는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제4절 | 애국 애족의 결의와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후 령 | 국토에 대한 사랑과 주체정신을 드높이며 무궁한 영원성을 기구하고 있다.

마. 애국가의 가사와 곡



3.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호국영령(戰歿護國英靈)에 대한 묵념(默念)

가.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의 의미

우리나라는 역사적 과정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외침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10년 일본의 침탈에 의해 근세조선이 수난을 겪을 때는 많은 지사(志士)들이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 신명을 초개같이 버린 선열들이 많았고, 그 분들의 뜨거운 애국·충국 정신이 이어져 조국광복을 맞아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그때 나라와 함께 명운을 같이하신 뜻 높은 지사와 열사(烈士)를 순국선열이라 한다.

또한 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키고 내우(內憂)에서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친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의 나라와 겨레를 지켜 영원케 하려는 충정이 아니었던들 우리나라와 겨레의 오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를 사는 국민은 그 숭고한 우국 애국의 정신을 기리며 보답하고 본받으려는 다짐과 실천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애국가 제창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충정을 기리며 그 행적을 본받겠다는 다짐을 한다.

나. 묵념의 방법

의식행사 때 사회자의 구령에 의해 참석자 모두가 부동자세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상태로 약 1분간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이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때 주악을 울리기도 한다.

4. 만세 삼창(萬歲 三唱)

가. 만세삼창의 의미

국민의례로서의 만세삼창은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한다.

만세'란 무궁하게 영원 하라는 기원으로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과 영원한 발전을 의미한다.

나. 만세삼창의 방법

만세삼창은 해당 의식행사가 끝나는 마지막에 대표자의 선창(先唱)으로 참석자 모두가 두 손을 벌려 머리위로 높이 쳐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다. 같은 동작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만세삼창이 끝난다.

만세삼창은 국민의 결의와 의기가 응집되어 우렁찬 소리로 나타냄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어떤 난관이라도 이기고 돌파한다는 기개가 솟아올라야 한다.

5. 국화(國花), 무궁화(無窮花)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와 우리나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알아두는 것이 한국인의 상식이라 할 것이다.

① 서기전 1,050년 경에 시작된 중국의 주(周)와 진(晉)의 지리책 ‘산해경(山海經)’이나 진(晉)의 ‘고금주(古今注)’에도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근화향·근역(槿花鄉·槿域)이라 기록하고 있다.

② 그래서인지 과거에 장원급제(科擧 壯元及第)하면 임금이 내리는 어사화(御賜花)를 머리에 꽂고 풍악(風樂)을 앞세우고 3일간을 시가를 도는 삼일유가(三日遊街)를 하는 자랑스런 어사화가 바로 무궁화 꽃이었고, 임금의 잔칫상에 꽂는 진찬화(進饌花)가 바로 무궁화였으니 그 위상을 알만하다.

③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노래할 만큼 불가불리(不可不離)하여 당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국화가 되었다.

그러나 무궁화를 국화로 한다는 법령이나 규칙은 없다.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6. 국호(國號)와 연호(年號)

가.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

① 우리나라의 헌법(憲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大韓民國 民主共和國)이다”고 국호와 국체(國體)를 규정하였다.

② 1919년 4월 13일에 선포된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한 것이 최초의 ‘대한민국’ 국호의 공식기록이다.

③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 이지만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 이라 약칭할 수도 있다.

나. 연호, 서력기원(西曆紀元)

① 근거: 연호에 관한 법률(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5호)에 의한다.

② 의미: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독립성을 나타내며, 특정왕조의 칭호로 쓰였다.

③ 우리 연호의 부침(浮沈): 근세조선(朝鮮)에는 연호가 없다가 1896년 1월 1일을 기하여 양력(陽曆)을 쓰면서 '건양(建陽)' 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였고 1897 (高宗 34)년에 '대한제국(大韓帝國)' 을 선포하면서 '광무(光武)' 연호를 쓰다가, 1910년의 국권상실(國權喪失)로 연호도 없어졌다.

④ 1945년 8월 15일의 해방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단군기원(檀君紀元)' 을 연호로 쓰다가 1948년 8월 15일부터 1948년 9월 24일까지 '대한민국(大韓民國)' 을 연호로 썼다.(상해 임시정부가 탄생된 1910년을 원년(元年, 1년)으로 하였다)

⑤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 '단군기원(檀君紀元)' 을 연호로 썼다.

⑥ 1962년 1월 1일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 을 쓰고 있다.

⑦ 참고사항 | 서력기원은 단군기원 연대에서 2,333년을 공제한 해수를 말한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는 '단군기원' 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7. 국가 원수(國家元首)에 대한 예절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을 통수하며, 우리나라의 안녕질서를 헌법에 의해 보전하고, 국정 전반을 통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민의사의 최고 집행자인 국가 원수를 예우하는 것이다.

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칭호(稱號)

① 대통령 | 통령의 칭호는 반드시 '대통령' 을 붙이고, '님' 을 받친다.

② 대통령의 부인 | '대통령 부인' 또는 '대통령 부인 ○○○여사' 라 한다. [영부인(令夫人)이 아니다. 영부인은 어떤 남자에게 그 부인을 지칭할 때에 쓰는 칭호이다.

특히 언론이나 식자(識者)들이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이라 말하는 것은 아침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칭호도 모르는 무식(無識)의 소치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반할 때는 동위격(同位格)으로 예우한다.

③ 대통령의 아들 1기·미혼 모두 '대통령의 몇남 ○○○씨(군)' 이라 한다.

④ 대통령의 딸: 미혼일 때에 '대통령의 몇녀 ○○○양' 이라 한다.

(본 항은 1994년판 정부 의전편람 441항에 의한 것이다.)

나. 대통령의 서열(序列)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식행사에서든지 대통령이 최상위자가 된다. 따라서 좌석을 배치할 때도 대통령을 최 상좌에 위치하게 해야 하며,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위치했든 대통령의 위치가 최 상좌가 된다.

다.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1983.11.22. 의정 131-1160)

① 국가원수가 의식행사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는 참석자는 모두 기립하여 박수로 경의를 표한다.

② 만일 참석자가 국기를 지참했을 때는 일어나서 국기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어서 경의를 표한다.

③ 의식행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 의 연주곡이 울리면 제복을 입은 사람은 일어나서 곡이 끝날 때까지 거수경례를 하고,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일어나서 부동자세로 대통령을 주목한다.

④ 국가원수를 개별적으로 상면할 때는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평경례로 경례하고, 제복을 입은 사람은 거수경례를 한다.

⑤ 국가원수 내외분과의 악수는 국가원수 내외분이 청할 때만 한다.

⑥ 국가원수가 출국하거나 환국할 때는 연도에 선 국민은 박수나 국기를 흔들어서 경의를 표한다.

⑦ 외국의 국가원수 내외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원수 내외분에 대한 예우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정

9월 13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에
박순태 국장(사진 왼쪽) 및 문영호 문화정책관(사진 오른쪽) 부임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성남문화원

송산(松山)어린이 백일장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 송산 조 건 선생을 추모하는 「송산 어린이 백일장」을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중원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조 건 선생(1351~1425)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이고 초휘는 윤(胤)이고 자는 종견(從犬)이며 호는 송산, 시호는 평간공(平簡公)이다.

조선왕조가 개국하자 선생은 통곡하며 두류산(현 지리산)으로 들어가 이름을 건(峴)으로 지를 종견(從犬)이라 바꾸었다. 조선 태조가 선생의 절개를 찬양하고 재주를 아껴서 벼슬을 내렸으나 사양하고, 청계산으로 은거하여 망경대에 올라 고려 송도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일생을 마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백일장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윤문부(동시, 동요, 시조시), 산문부(일기, 편지, 기행문)로 나누어 총 200여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백일장이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내 친구, 우리 집, 일요일, 송산 할아버지'를 주제로 이들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32명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일) 송산조건 선생 묘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문학교실〉 현장 답사



성남문화원은 9월 28일 성남문화의 집 문학교실 수강생 및 문화원·문화의 집 직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문화현장답사를 실시 하였다.

이날 문화현장 답사는 경기도 최초의 문학박물관인 양평의 '잔아 문학박물관'과 소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며 소설 속 분위기를 그대로 묘사해 놓은 '양평 황순원 문학촌', 〈봄봄〉,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고향 마을인 강원도 춘천 '김유정 문학촌'을 잇따라 방문하였다.

이번 답사는 우리 현대 문학사의 대표적인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문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학정서를 만끽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포천문화원

포천문화원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공연
_가산면 금현리 소재 "자혜의 집"에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단은 16일 가산면 금현리에 소재한 "자혜의집"에서 시설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나눔 봉사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및 문화나눔 봉사단원을 비롯하여 자혜의 집에 입소한 어르신 및 입원환자,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퓨전 악단의 섬마를 선생님, 사랑이란 두 글자, 고향의 봄 연주 및 색소폰 독주, 하모니카 독주로 동요메들리를 연주하였으며, 전통무용, 가야금병창, 피리와 대금연주 등의 흥을 돋우는 공연으로 이날 모인 어르신들에게 모처럼 문화의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문화 나눔 공연을 통해 포천문화원 봉사단원들은 취미생활로 배우고 익힌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 소외 지역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다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공연을 관람하신 어르신들도 문화공연을 통해

우리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 추억의 은빛퓨전악단 문화나눔 봉사단은 노인요양원, 장애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혜택 나눔을 지속 실시 할 계획이다.

안성문화원

안성맞춤 전국 경 · 서도민요 경창대회

안성문화원(원장 양장평)은 "제39회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안성맞춤 "전국 경 · 서도 민요 경창대회"를 오는 10월 16일(토) 안성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 한다.

안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선소리산타령(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보존회 경기지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의 경연 종목은 경기민요와 서도민요이며 참가부문은 명창부, 일반부, 학생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10월 8일(금) 17:00까지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남·여 및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안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asc.or.kr>) 참조.

서울 강동문화원

제6기 문화대학 개강



강동문화원이 그 어느 때보다 야심차게 준비한 제6기 강동문화대학은 2010년 9월 15일(수) 강동구민회관내 1층 소회의실에서 개강했다.

수강신청 접수 결과, 정원이 될 정도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14강좌가 진행되며, 10월 문화유적답사와 11월 미술관 견학으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공개강좌로는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의 역사에서 미래를 묻다 라는 주제로 우리 문화 발전에 커다란 폭발력이 축적된 사료를 토대로 신영희 국악인이 '우리의

문화원이모저모 NEWS

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선이 굵고 맑은 남도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강의를, 이원달 서양화가이자 문화원장은 자연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강의로 수강생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



김홍신(소설가) 건국대 석좌교수는 '인생사유 설명서'라는 주제로 '일회용 휴지를 한번 쓰고 버리듯이 인생은 한번 뿐'인 삶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정호승 시인의 인간 근본적인 고독과 슬픔의 원형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주는 한마디'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외에도 고전적 화두가로 가정에서 기본예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영숙 예지원 원장,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가슴속 겹겹이 쌓아둔 얘기를 시로 풀어낸 유안진(시인) 서울대 명예교수, 내 삶의 주인공으로 연기하라는 이영란 경희대 교수, 음악이론과 아름다운 가곡을 따라 부를 수도 있는 이명옥 성악가, 낯설지 않은 풍속화를 흥미롭고 맛깔스럽게 풀어 해석하는 이태호 명지대 교수,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기혜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작곡가들의 생활 뒷얘기도 함께 듣게 되는 김갑수 음악평론가 등 저명한 스타강사들로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다.

충북 청원문화원

통가족 공예 만들기 체험

청원문화원(원장 배금일)은 가족공예를 만드는 사람으로 구성된 '명품세상·청원갯바치'회원들이 7일 남일면 동화초등학교에서 통가족 공예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동화초 1~3학년 25명과 함께 직접 통가족에 무늬를 각인하고 예쁘게 색칠을 해 가족실로 꿰매고 마무리 작업까지 이마에 땀방울을 흘렸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 어른스런 자애로움과 어린이들의 공경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보람된 시간이 됐다.

이들 '명품세상·청원갯바치'회원들은 지난 5월부터 통가족공예 실습 교육



을 받았다. 지난 달에는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 성보나의 집 장애우들과 소통과 나눔을 위해 함께 통가족체험 행사도 가졌다.

한편, 청원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는 어른들이 문화자산을 매개로 다른 세대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회 소식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창조적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의 역사·생활·문화자원 그리고 향토문화의 보존·전승·발굴·개발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동아일보사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2010년 10월 4일 오후 3시 광화문 동아미디어 센터 19층 방송사업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최중수 회장과 동아일보사 김재호대표이사가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안국정 공동위원장, 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중 박인호(은평문화원장), 오용원(경기도지회장·평택문화원장)부회장도 배석하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향후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5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당선작 발표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는 25년 전통 국내 유일의 향토문화공모전인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논문, 자료, 콘텐츠 3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고, 영예의 대상에는 '은둔(隱遁) 문화의 꽃 외룡암(臥龍庵) 연구'로 이윤업 전주문화원 동국전체연구소장이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생으로 향토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인 산민족사관고등학교 손보경, 윤재원 학생이 번외로 뽑혔다.

2010 대한민국 문화원상 선정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는 2010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공모하여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문화원상은 2008년부터 매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문화원과 문화활동가,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기리고자 제정되었다.

2010 대한민국문화원상은 종합 경영부문, 우수 프로그램 부문, 창의활동부문, 문화협력 부문, 문화창달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2010년 8월 25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15일간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총 47개 단체 및 개인이 응모하였고, 이 중 총 18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심사는 심사규정 및 심사기준에 의거(정량평가+외부전문가심사)해서 문화기획·경영·행정·정책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이 1차 심사(9. 18. 10:00)와, 2차 심사(9. 25. 10:00)를 거쳐 결정하였다.

영예의 대상에는 연기문화원 (원장 임영이)이 선정되었다.

시상은 2010년 10월 8일(금) 오후 2시 서울 동작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다.

지방문화원 소식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박범창

1973년 10월 25일 생
월간미술커뮤니티 편집부장
영상시대 창 총괄기획
사)환경미술협회 충남도지회 분과위원장
임용일자 | 2010년 9월 1일자

대구 동구팔공문화원 사무간사 김성경

1985년 10월 10일 생
경북대학교 중어중문 졸
임용일자 | 2010. 9. 1

경남 하동문화원 사무간사 휴직 및 계약임용

한수진(휴직 기간 | 2010.9.1~11.30, 출산 휴직)
이은희(계약임용 기간 | 2010.9.1~11.30)

제6회 경주시 풍물경연대회

일시 | 2010년 9월 29일(수) 10:00
장소 | 황성공원 씨름장(우천시 경주 실내체육관)

제7.8대 경남 고성문화원장 이취임식

일시 | 2010년 10월 4일(월) 11:00
장소 | 고성문화원 대회의실(3층)
제7대 이임원장 | 김권조
제8대 취임 원장 | 원장 도충홍

군산문화원 제19회 오성문화제전

일시 | 2010년 9월 30일(목) 11:00
장소 | 오성산 정상(오성인 묘소)

제9회 한마음 미술 사진대전

전시기간 | 9월 30일 - 10월 5일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주관 | 울산 남구 문화원(원장 윤성태)

제44회 처용문화제

일시 | 10월 7일 12:00
장소 | 남구 황성동 세죽마을(처용암 공원 앞)
주최 |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 | 울산 남구 문화원

마포문화원(최병길) 제13주년 개원기념일

일시 | 9월 30일 15:00
장소 | 마포아트센터 3층 공연장
내용 | 제13주년 기념식 제81회 삼개 사냥송회

의왕문화원 개원11주년

일시 | 9월 29일 16:00
장소 | 의왕문화원 3층 대강당

울산 동구 문화원 (원장 김갑복) 주소 변경

변경 전 | (681-820)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37-10, 2층
변경 후 | (681-822)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52-15, 1층

원 장 등 정 NEWS

신임 원장



전북 순창문화원장(연임)
김기곤

농촌지도 공무원 32년 정년
순창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6년 역임
순창청년회의소 특우회장 2대 역임
순창군 평화통일자문위원
순창문화원 부원장
취임일자 | 2010년 9월 3일

퇴임 원장



경남 고성문화원장
김권조

세계평화대사협의회 회장
고성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세계일보조사위원협의회장
동부농협합병설립위원장



제2대 구로문화원장
강장석

오류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오류도서관장
전 새마을금고 연합회 감사, 이사
취임일자 | 2010년 9월 3일



구로문화원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화성문화원장
공일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국 이스턴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회춘플라자 대표 · 화성문화원 이사
취임일자 | 2010년 10월 1일



화성문화원장
기봉서

화성군의회 의원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부회장



경남 고성문화원장
도충홍

통영시 부시장
하동 · 남해 · 고성 부군수 역임
지노종합건설(주) 대표
취임일자 | 2010년 10월 1일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韓國秋史書藝大展

제 7 회 한국추사서에대전

접수기간 **2010년 9월 27일 ~ 29일**
(18:00까지, 우편접수시 29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추사체, 전각

전시기간 **2010년 11월 16일 ~ 22일**
(시상식 11월 16일)

전시장소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및 다목적홀

시상 대 상 - 1명(상금 1,000만원)
최우수 - 1명(상금 500만원)
우수상 - 4명(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 8명(상금 각 50만원)
특 선 - 50명(상금 각 10만원)
입 선 - 다수

문의 **02-504-6514**
www.gccc.or.kr

(후)427-802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45번지
과천문화원 (한국추사서에대전 운영위원회)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